
2020-1학기 가천인 독후감 대회
수상 작품집



공감의 내일이 열립니다
가천대학교 의사소통센터

■ 심사평 신 윤 경 교수

■ 2020-1학기 수상 작품 소개

- 대상 / 이상과 현실의 괴리 글로벌경영학과 고흥근 / 1
- 금상 / 불화 없는 미래로 갈 수 있다면 도시계획조경학부 류다현 / 5
- 금상 / 선량함이란 타인이 고통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면 화학과 노서현 / 8
- 은상 / '잠수정'을 '혼자' 탔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들 자유전공학부 정유정 / 12
- 은상 / 서양미술사(곰브리치 저)를 읽고 자유전공학부 김해찬 / 15
- 은상 / 당신은 아버지를 죽여보았는가? 패션디자인학과 이권우 / 19
- 은상 / 두 도시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는 또 다른 이야기 영미어문학과 임동현 / 23
- 은상 / 존재의 의미 글로벌경영학과 이수빈 / 27
- 동상 / 참회록 화공생명공학과 최하은 / 30
- 동상 /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재고 도시계획조경학부 최예진 / 33
- 동상 / 이물질의 시대..... 치위생학과 최예리 / 36
- 동상 /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는 모든 우주인을 위하여 심리학과 박소연 / 39
- 동상 / 인간이 맞닥뜨린 모순점 의예과 박준하 / 43
- 동상 /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잠깐의 호흡도 허락되지 않는 물속에 잠겨있는 기분 유아교육학과 정윤아 / 47
- 동상 / 나는 어떤 인간인가 간호학과 홍다인 / 50
- 동상 / "페스트란 무엇인가요? 인생인 거죠, 바로 그거죠, 뭐." 경찰·안보학과 장혜연 / 53
- 동상 / 당당한 불량품 자유전공학부 김연준 / 56
- 동상 / 더 어둡기에, 더 밝을 수 있다는 것을 경영학과 박수진 / 59
- 외국인 금상 / 우리 모두는 '평강 공주'나 '바보 온달'이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란 / 62
- 외국인 은상 / 나는 그곳에 살고 싶다 경영학과 유포림자 / 63
- 외국인 은상 / 삶의 무기가 되는 쓸모 있는 경제학을 읽고 국제경영학과 여조양 / 65
- 외국인 동상 / 심리학과 경제학이 만나면 자유전공 서옥평 / 67
- 외국인 동상 / 무엇이든 알고 있으면 삶의 도움이 된다 동양어문학과 곤도미카 / 69
- 외국인 동상 / 삶의 부정적인 것을 알고 열심히 고치라 관광경영학과 엄이림 / 70

2020년 <가천인 독후감 대회> 심사평

심사위원장 신윤경 교수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의 일상이 흔들리는 혼돈의 시간으로 시작되었다. 대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특히 신입생들은 입학식도 치르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하는 이변을 겪었다. 그러나 이런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치러진 <독후감 대회>는 의외의 결과를 안겨 주었다. 일단 참여율이 2019년 대비 60% 증가한 649명(외국인 75명 포함)이었으며, 참가자들의 글 수준도 한층 높아져 심사위원들의 놀라움과 감탄을 자아냈다.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본인과 여러 심사위원들은 학생들이 책을 읽고 성찰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이 많아진 것이 아니었나 추측해 본다. 코로나 19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한층 여유로워진 시간에 <독후감 대회>를 접한 학생들이 직접 책을 구입하고 글을 쓰게 된 것 같다. 이런 내용은 몇몇 참여자들이 어떻게 <독후감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서술하는 내용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이로써 우리는 '책읽기'의 본질적인 목적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책을 접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나마 책을 읽는 독자들도 책을 읽는 목적은 과제나 업무, 이벤트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해 이런 파행적인 독서 문화를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인류의 어떤 삶들이 코로나 19를 만들어 냈는지 전 세계가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도 자신의 일상을 되돌아보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성찰의 내용이 수상작들에 오롯이 반영되어 있다.

대상을 수상한 고흥근(글로벌경영학과)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뉴스의 시대』를 읽고 쓴 글로써, 『뉴스의 시대』에서 언급하고 있는 '언론의 역할'을 자신의 논리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있으며, 가짜 뉴스가 판치는 현 시대의 언론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의 독후감을 쓴 금상 수상작 2편은(류다현, 노서현) 과학이 발전하고 인류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 소외와 차별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편의점 인간』을 읽고 쓴 다른 수상작들도 과연 무엇이 정상적인 삶의 기준인가라는 화두에 대해 현재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적인 삶이라는 기준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 참가자들의 글도 마찬가지로였다. 금상을 수상한 이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의 <우리모두는 '평강 공주'와 '바보 온달'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전 『평강 공주와 바보 온달』을 읽고 그 인물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우수작이다. '바보 온달'을 모두 바보라고 했을 때, '평강 공주'는 그와 결혼해서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준 편견 없는 여인이라 해석했으며, '바보 온달'은 재력 있는 공주와 결혼했음에도 착한 심성이 변하지 않고 '평강 공주'를 끝까지 사랑한 독심 있는 사랑꾼으로 해석했다. 뛰어난 외모와 경제력이 사랑의 조건이 되어 버린 현대 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유포림자(경영학과)는 『어디서 살 것인가』의 독후감으로, 말 그대로 '어디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의 결과를 글로 담아 냈다.

이처럼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현재 삶의 여러 화두에 대해 깊이 고민한 사고 과정이 잘 드러난 우수한 글들을 읽으면서 심사를 넘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말해 주고 싶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어린 시절 부모님은 한국일보를 구독하셨다. 어릴 때부터 신문을 읽으면 큰 도움이 된다는 조언을 TV에서 접했던 초등학교 5학년의 나는,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매일같이 신문을 읽었다.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가 뭔지,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 뭔지도 몰랐고, 정치에 대해 도통 이해를 할 수 없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여쭙본들 소득은 없었다. 오히려 정치에 관하여 물어보는 것은 안 된다고, 정치색을 드러냈다가 서로 싸움을 벌이거나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난다고 내게 주의를 줬다. 당시 나는 정치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답을 들어야하나 싶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이에 대해 도통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저 커가면서 책을 읽고 신문을 몇 년간 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한 것 같다. 중학생 때는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를 구독하였는데, 흡수력이 강했던 나는 신문의 논조를 자연스럽게 체득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며 감세 및 규제완화는 필수적이고 노동자들의 파업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한 이기적인 소행이다!'라는 가치관이 정립되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국어선생님의 추천으로 한겨레를 추가로 구독하게 되었다. 세 신문이 집중하는 이슈, 기사 배열 방법, 사설의 논조는 확연히 달랐다. 그리고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시던 고등학교 국어 및 사회 선생님들의 말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들던 '나는 꿈수다'로 인해 나의 가치관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군 생활을 할 때는 다행히 부대 내에 도서관이 있어서 매주 일주일치 분량의 지난 신문을 들고 생활관에 와서 읽었다. 그러다가 주간경향, 뉴스위크, 시사인, 한겨레21 주간지의 깊이가 일간지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깨닫고는 주간지를 집중적으로 매주 읽었다. 나중에는 '주간지 독서왕'으로 월간 공군 잡지에 인터뷰가 실리기도 하였다.

돌이켜보니 사람의 가치관은 자신이 어떤 신문을 읽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통설이 사실인 것 같다. 언론은 사람의 눈이자 귀이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그것이 굳어지면 가치관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뉴스를 비판적으로 접하고, 그 논조에 끌려 다니지 않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학교는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 직접 찾아보거나 크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도 서문에서,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뉴스의 언어와 이미지에 대해서 좀처럼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한다. 이는 의도된 것이고 뉴스가 사람들을 교묘히 조종하기 위해서라고 혹자는 주장한다. 음모론이라고 치부하기만도 어려운 것이, 이제는 다들 알고 있지만 어떤 큰 비리가 정치권에서 드러났을 때 유독 연예계 스캔들이 하나씩 폭로된다. 뉴스는 사람들을 통계의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고, 유명인의 발언 맥락을 무시하고 논란을 키울 수 있는 중간 발언만 쏙 빼서 이슈화하기도 한다. 비판적으로 뉴스를 접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 이상, 수동적으로 의견을 수용하고, 그릇된 가치관을 형성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자는 전체적으로 이상적인 뉴스의 형태를 제시한다. 책을 읽어갈수록 과연 언론사가 저자의 뜻대로 이상을 추구할 것인지 큰 의문이 들었다. 황색언론, 정치권과 유착되어있는 언론사들, 재난 현장에서 친구의 죽음을 거론하며 심경을 묻는 비상식적인 언론사가 많은데 과연

이런 풍토에서 이상적인 뉴스가 나올 것인가가 매우 큰 의문이었다. 게다가 서문에서 뉴스의 언어를 가르치지 않는 현실이 이상하다고 했으면서 정작 저자는 독자에게 직접 알려주지 않는 것이 모순 같았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상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독자는 뉴스 기사를 접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함의를 파악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그 함의도 불충분했다.

인쇄술이 보급되기 전까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 성직자 계층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곧 권력계층이었다. 양반들이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도 하층계급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순간 자신들의 특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인지했기 때문이었다. 과거 서양에서 계몽주의 사상이 퍼질 수 있었던 이유로 인쇄술의 보급 및 발달을 꼽을 수 있음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신문사는 권력자를 감시하고 매일 같이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었다. 언론이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언론사가 권력기관이나 이익집단에 의해 통제될 때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왔다. 괴벨스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활용해 유대인 학살 및 나치즘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 냈다. 그리고 국민 스스로를 전장에 나가도록 독려했다. 전두환 정부는 자신의 정권 유지에 해가 되는 신문 기사는 단신으로 처리하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사는 많은 단을 차지하도록 신문을 검열함과 동시에, 뉴스 첫 부분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뉴스로 시작하면서 권력을 공고히 했다. 국가보다 더 좋은 정보력을 가진 로스차일드 가문이 워털루 전쟁 패배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려 영국 국채 가격을 폭락 시킨 후 이를 다 매입했던, 화폐전쟁 1권 첫 장의 사례에서 보듯 언론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 좌지우지 될 경우 한 국가의 경제 자체를 뒤흔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뉴스는 언론사의 의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롯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면서 무색무취할 때 비로소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저자는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을 정치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말한다. 나도 이에 동의한다. 언론사는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뉴스를 조합해서 사람들 머릿속에 이미지를 형성한다. 인간은 매일같이 통신사가 보내는 정보들을 계속 파악할 수가 없다. 한정된 시간 안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지에 대한 주관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주관뿐 아니라 의도도 개입된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뇌하는 언론인들도 있겠지만 충성된 뉴스고객 확보, 정책지지 유도, 언론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보 등의 목적을 가지고 뉴스를 제작하는 언론사들이 부지기수이다. 뉴스에 주관이 개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므로 뉴스를 접하는 우리의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나는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을 목도하였다.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게 인포데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사실을 담은 뉴스의 전파속도보다 가짜뉴스의 확산속도가 더 빠른 현상을 보면, 저자가 책에서 말하는 정치뉴스의 이상이 과연 현실적인가 하는 큰 의문을 갖게 한다. 이 뉴스가 진실한지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이나 언론사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언론인들이 정말 신뢰 가능한가? 언제나 실수나 불순한 의도 없이 진실만을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 완벽히 '그렇다'고 답변할 수 있는가? 뉴스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면 비판적 사고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하는가? 코로나에 대한 가짜뉴스를 우리는 스스로 판별할 수 있었는가? 비판적 사고를 하는 힘이 결여되어 있다면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배워야 하는가? 배운다면 가르치는 자의 생각하는 방향, 가치관 등도 간접적으로 흡수될 터인

데, 지금 내가 가진 생각은 나만의 고유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결국 '나의 생각은 진실한가?'로 귀결되는 것 같다. 그래서 뉴스를 어떻게 접해야하는지 내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보면 근본적 물음에 도달하기 일쑤다. 나는 이런 고뇌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다.

책 마지막 장 이름이 '맞춤 뉴스 만들기'이다. 저자는 '수시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편집 기자들 대신에 컴퓨터가 맞춤형 단신을 제공하면 개인주의적 유토피아를 이룩할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뒤에 저자는 '병적 측면이 강화' 될 수 있다는 단점을 제시하면서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뉴스에 대해 고도로 성숙하고 복합적인 감각을 갖추고 있을 때 뉴스 편집 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덧붙인다. 나는 이 부분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고도로 성숙한 감각을 갖춘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경영학 분야 중 마케팅 소비자행동론에 따르면 소비자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해 익숙하게 만들어야 그들의 지갑이 열릴 수 있다고 한다. 기업들마저도 소비자의 확증편향을 활용하는데 구글이나 네이버가 맞춤형 뉴스를 제공하게 되면 사람들의 확증편향은 극히 강화되고 결국 정치적 관점이 극단화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도대체 누가 그런 복합적인 감각을 갖추고 있는가? 적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감각이 없다.

단적인 예가 'Youtube'이다. 이제는 일반인도 당장 웹캠을 켜서 사회 현상에 대해 비평할 수 있다. 정치인이나 유명 논객, 단체들도 채널을 개설하고 여러 영상을 업로드 한다. 문제는, 엄청난 양의 가짜뉴스가 유튜브에서 생산되거나 확산된다는 점이다. 영상을 업로드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언론사와는 달리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 여기에 유튜브는 개인에게 최적화된 추천 영상 서비스로 맞춤형 뉴스를 제공한다. 어떤 정치적 주장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면 추천영상에 비슷한 관점의 영상이 뜨고, 그걸 또 보다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주장에 관련된 영상만 추천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극도의 확증편향을 갖게 되어 다른 의견의 영상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제3당이 없다시피 한 이번 총선결과를 봐도 사람들의 생각이 양쪽으로 얼마나 치우쳐져 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이게 우연인가? 이미 언론사로서의 유튜브 신뢰도가 2위라는 설문조사 결과들이 즐비하다. 전통적 언론매체 구독률은 줄고 사람들은 포털이나 유튜브에서 뉴스를 소비한다. 저자가 과연 현 상황을 보고 유토피아가 이룩될 것이라던 의견을 그대로 갖고 있을지 너무나 궁금하다.

한편 경제뉴스에 관한 저자의 생각은 내가 그동안 품었던 불만과 일맥상통한다. 뉴스에서는 무미건조하게 경제 수치들을 제시한다. 어려운 개념의 단어들을 나열하여 시청자나 독자의 이해를 어렵게 한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할 때 경제 뉴스는 도통 도움이 안됐다. 이로써 사람들은 경제 뉴스에 대한 관심을 갖기는커녕 그로부터 멀어진다.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제뉴스인데도 그렇다. 아울러 언론사는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비판하기에 급급하다. 그러고는 '대안이 필요하다'를 마지막에 무성의하게 덧붙인다. 사회가 나아가야할 이상적인 경제상을 제시하거나 실험적 방법을 제안하는 뉴스기사가 거의 없다. 저자는 '완벽한 뉴스 서비스라면 현재의 사안을 분석하면서도, 이상적인 사회를 그려내려는 과감한 경제 원리도 전할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나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지상파 언론사 사장이 정치적 이해에 의해 선임되거나 경질되고, 그에 따라 방송사들이 집단 파업을 일으키고,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폐지되기도 하였으며 언론사 관계자들이 국내 대기업과 결탁하는 사건도 있었다. 한편 언론에 의해 시민들이 각성하여 스스로 주권을 쟁취하고 권력을 교체하기도 하였다. 분명 깨어있는 시민들이 다수여서 사회는 진보한다. 하지만 그 다수도 가짜뉴스를 접할 때 또는 언론사가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행동할 때 매번 휘둘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권력기관이 언론사의 보도나 프로그램 편성에 개입

할 때 다수가 행동하여 그 상황을 개선시키리라는 보장이 없다.

물론 이상적인 뉴스의 형태를 제시한 것은 좋다. 독자들이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뉴스를 접할 때의 올바른 태도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나 또한 뉴스를 접하는 자세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생각해볼 수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자가 나이브했다고 생각한다. 서문에서 뉴스에 대해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했는데 정작 저자의 해결방안은 뉴스의 이상을 제시하면서 간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언론사가 이상적으로 바뀌는 것이 쉬운가 아니면 독자에게 바람직한 태도를 가르쳐줘 뉴스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이 쉬운가?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문화, 인물, 연예 파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었고, 뉴스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이해하는 등 큰 소득이 있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마음 한편에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상을 생각하는 것이 진정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가지지 않았다. 저자가 목표한 독자층이 저널리스트 혹은 이를 지망하는 사람들이라면 큰 의미가 있겠다. 하지만 분명, 뉴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바뀌어야 언론사도 바뀔 것이 아닌가. 단언컨대 소수 언론사가 바뀌어도 대다수의 언론사가 이상을 좇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여러 모로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저자는 말한다. ‘이상적인 언론 기관을 그려보기 위해서는 미디어가 처한 경제적 사회적 현실에 냉담해서는 안 된다.’ 나는 차라리 미디어가 처한 경제적 사회적 현실에 냉담하겠다.

불화 없는 미래로 갈 수 있다면

가상의 미래를 펼쳐보이는 SF장르가 빠르게 대중화된 것과, 미래학(學)이라는 연구 분야가 갈수록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최근의 실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어쩌면 다가올 미래에 대해 상상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취미일지도 모른다. 특히 그 상상이란 기술 분야의 발전상을 예측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가 기술에 의존해 일종의 변혁을 맞이하는 모습을 너 나 할 것 없이 목격해왔기 때문일테다. 아무리 먼 거리에 떨어져있더라도 서로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통신기술, 내 기분을 예측해 적합한 음악을 틀어주는 AI기술 등은 분명 우리의 삶을 한층 더 윤택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경험들은 곧 다가올 미래가 얼마나 더 나아가게 될지를 궁금하게 만들었다. 당장 내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정말 미래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올 것인지, 사람과 똑같이 생긴 로봇이 우리의 소일거리들을 대신해줄 것인지 같은 의문들을 품었었으니 말이다. 기존의 그 의문들이 실제 연구의 단계에서나마 대부분 실현된 지금, 우리는 보다 혁신적인 기술의 등장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술 그 자체’ 못지 않게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것은, 기술문명의 등장으로 인해 변화할 ‘사회’의 모습이다. 기술이 앞서가는데 정작 우리의 의식은 구시대에 머물게 된다면, 불협화음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지사다. 기술의 발전은 이미 거대한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거스를 수도 없거니와 필연적으로 도래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여러 사회적·인간적인 변화들에는 비교적 많은 이들이 무관심해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가령 인공지능 로봇이 공동체 구성원으로 편입될 때의 윤리적 쟁점,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지는 여러 도덕적 논의의 층위 따위는 오늘날의 우리가 지속적으로 토의하고, 합의를 통해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논의에 얼마나 몰두하고 있는가?

김초엽의 첫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이 지점에 정확히 안착해, 독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문제에 관한 성찰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의 소설은 단순히 화려한 미래와 기술의 발전을 도식적으로 늘어놓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기술이 ‘어떤 사회’를 이룩해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보기에 작금의 우리 사회는 다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모양이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표제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포함한 7개의 단편은 모두 포용적 세계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세계는 말 그대로 ‘가상’의 미래여서, 우리가 지금의 관성대로 행동해서는 결코 가닿을 수 없는 곳이다. 김초엽은 현재의 사회와는 판이하게 다른 미래를 묘사하며 ‘이대로는 안된다’는 자성을 전달하는 것이다. ‘김초엽 세계관’의 시작을 열어젖히는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에서부터 우리는 작가가 선명한 주제의식을 바탕에 둔 작법을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데이지는 반목과 고통이 없는, 소위 유토피아격에 해당하는 행성에서 살고 있다. 이 세계에서 사람들은 특정 연령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시초지’로 순례를 떠나는 것이다. 이 시초지란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바로 지구다.

지금의 우리에게도 주지의 사실이듯 지구는 참 결함 많은 행성이다. 단언컨대 가장 대표적인 결함은 ‘포용력의 부재’일 것이다. 소설 속에서 묘사되고 있는 ‘미래의 지구’는 오늘날의 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극심한 양극화가 뿌리깊게 자리 잡은 사회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이 암암리에 거래되었고, 자본의 유무는 사람들의 인생을 갈라놓기 시작했다. 자본가들은 자신의 자녀에게서 흔히 단점이라 생각되는 것들—장애, 질병, 흠터, 얼룩—을 덜어내 ‘신인류’를 탄생시켰고, 유전자 편집을 할 수 없었던 이들은 그 존재 자체로 일종의 결격사유가 되어 탄압받는 비개조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즉, 이 소설은 과학적 소재인 유전자 편집 기술을 전면에 내세웠으나 실상 핵심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차별적 세태이다. 좀 더 부연하자면, 사람들의 몇몇 특성이 결함으로 격하되고 종내에는 그것이 차별로 이어지는 것을 용인하게 되는 세태이다. ‘다리가 하나 없는’, ‘얼굴에 얼룩이 있는’ 따위의 개별적 특징들이 그저 단점으로 치부되는 것을 경계해야한다는 속뜻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다른 단편들도 유사한 주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개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작품들을 꼽자면 「관내분실」과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다. 「관내분실」은 이 소설집에서 가장 신파적인 서사를 가졌다. 소설 속에서 엄마는 이미 죽었고, 그와 평생을 불화했던 딸 지민은 원치 않았던 임신을 하게 되며 그제서야 자신의 엄마를 떠올린다. 그런데 정작 찾아간 도서관—미래의 도서관은 망자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에서 엄마를 ‘분실’했다는 소식을 전해듣는 것이다. 지민은 엄마를 찾기 위해 몇없는 추억들을 되짚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화해를 향해 나아간다.

기실 이 화해의 내용이란 일종의 여성연대에 기반해있다. 지민이 엄마를 되찾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사실은 엄마가 경력단절여성이었다는 것,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같은 내용들이다. 늘 지민의 기억 속 엄마는 너절한 뒷모습 뿐이었지만, 당연하게도 그에겐 입체적인 삶이 있었던 것이다.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일감이 줄어드는 지민의 모습은 엄마의 삶을 빼닮았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여러 감정 속에 휩싸여 고통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 소설이 고발하는 것은 ‘억압받는 여성의 삶’이 대를 이어 전승되는 현실이다.

또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는 어떤가? 이 소설은 인간을 사이보그화해 터널 너머의 먼 우주로 보내는, 일명 ‘사이보그 그라인딩’ 프로젝트를 서사의 주된 축으로 다루고 있다. 사이보그 그라인딩의 최초 참여자로 선발되었던 재경은 사이보그화가 끝나자 돌연 프로젝트를 이탈해 심해로 사라진다. 그리고 이 내막을 몰랐던 그의 조카¹⁾ 가운은 재경이 불운의 사고로 사망한 ‘우주 영웅’이라 여긴다. 그러다 재경이 사이보그화된 신체를 가지고 홀연히 사라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고, 가운은 스스로 영웅이라 여겨왔던 재경에 대해 혼란을 느낀다. 하지만 소설이 전개되면서 밝혀지는 것은, ‘약한 신체를 가진 중년의 동양 여성’이 인류를 대표해 우주에 나갈 수 있겠느냐는 멸시와 편견이 재경을 괴롭혀왔다는 사실이다.

우리 모두에게 ‘표준’이란 어떤 것일까? 강인한 근력, 튼튼한 장기, 뛰어난 지구력 따위가 ‘인류를 대표’하기 위한 자질일까? 가운은 터널에 진입하는 그 순간까지 재경의 선택을 곱씹는다. 우주로 떠나기 직전, 재경은 그간의 모욕을 견뎌야만 했던 ‘편견의 몸’이 아니라 종전의 기준으로는 재단될 수 없는 새로운 몸을 실감했을 것이다. 가운은 재경이 사이보그가 된 자신을 충분히 만끽하며 행복을 찾았을 것이라 상상하는데, 결국 재경이 홀연히 떠나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어느 누가 그를 선불리 비난할 수 있을까?

정리하자면, 이 책의 핵심적인 가치는 ‘혐오와 부당한 배제에 반대’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

1) 친조카는 아니며, 가운의 어머니와 재경이 감정적으로 가까운 사이였기에 가운은 어릴 적부터 재경과 함께 살며 ‘이모’라 호칭했음.

의식'을 되살리자는 선명한 메시지에 있다. 어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인데다, 딱히 새로울 것 없는 가치관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초엽의 이 소설은 작년 한 해 동안 부단히도 많이 팔렸고, 많은 이들이 '올해의 소설'이라며 극찬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왜 이 책은 우리를 열광케 했나? 지금 이 시점에서 김초엽의 메시지는 왜 새로이 환기되는가?

그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혐오를 배제하자는 메시지가 호응을 얻는 것은, 우리 모두가 혐오가 들끓는 사회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범죄가 줄이었던 것과, 백인 경찰이 흑인을 과잉진압해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비극적인 이야기는 어느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부끄러운 자화상은 바로 지금, 2020년의 이야기인 것이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낯선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풍토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공동체 정신을 외치며 화합을 희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동체란 '마음에 드는' 이들과만 뭉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하게 존재하는' 이들과 소통하고 공생하는 것일진대, 오늘날에는 이 기본적인 원리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더없이 시의적절한 지적이고, 정확한 비판이다.

이 글에서 짚은 세 편의 단편 외에도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는 뚜렷한 주제의식과 따뜻한 언어들이 넘실댄다. 그리고 이 글들은 분명 독자들의 시선을 잡아끄는데 성공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으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에는 무언가 강한 힘이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독자들의 마음을 강렬히 이끈 이 소설은 그 특유의 힘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 셈이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는 없을지언정, 불확하지 않는 미래로 갈 수는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두가 답을 내놓을 차례다.

선량함이란 타인이 고통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면

나는 평소에 우주에 아주 관심이 많다. 하루종일 막연하게 우주를 생각하고 있고, 다른 일을 하다가도 우주에 대한 무언가를 찾아보는 쪽으로 시간이 쏠려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우주에 대해 얘기하는 것에 늘 미리 빼딱해지는 경향이 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가 최초의 우주라고 여기고,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형태로 저 너머의 우주를 추측하며 인간에게 우주를 지배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영 보기 싫다. 그런 식의 우월감과 배제 현상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배제와 닮은 점이 많기도 해서일까. 그래서 사실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봤을 때도 이 문장이 완성되는 사고의 흐름이 지금까지 봐 왔던 그것들과 비슷할 거라고 넘겨짚었었다. 현재의 물리학에서 광속은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최고 속도이며, 우리가 아는 어떤 것도 광속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그러나 광속은 기껏해 봐야 우리 은하 정도의 범위 안에서나 언급할 만하지, 우주를 다루기에는 불편할 정도로 작은 단위이다. 우리가 마이크로미터 단위를 가지고는 A4 용지 한 장의 크기를 얘기하기도 불편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고 해도 그건 별일이 못 되는 건데,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는 사실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인간의 희망을 끌어낼까 싶었다. 아무튼 이렇게 비판적이고 주제넘은 짐작을 품고 있으면서도 나름 우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호기심이 들 수밖에 없는 제목이기 때문에 이 책을 펼쳤다. 하지만 이 책을 다 읽고 난 지금은 그 추측들이 나는 그들과는 별개로 내 방식으로 나만의 비좁은 세상을 꾸리고 있었다는 것을 명쾌하게 증명해 주기만 하는 것으로 보여 부끄럽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뒤에 따라온 말은 내 예상과는 달리 인류에게 긍정적인 말이 아니었다. 이 문장은 이 책 네 번째 이야기의 제목이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미래의, 폐기가 시급한 어느 낡은 우주정거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할머니와 한 남자의 대화를 위주로 전개된다. 할머니의 과거 회상으로 이야기는 시작되는데, 할머니의 젊은 시절 그 세계에서는 우주를 개척하기 위해 우주선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빛의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했다. 그러나 공간 왜곡 기술을 통해 거리 자체를 단축시킴으로써 빛보다 빠르게 다른 은하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몇 년에서 몇십 년은 인간이 맨정신으로 우주 속에서 버텨내기엔 어려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연구원이었던 그녀와 그녀의 동료들은 그 시간 동안 인간을 냉동 수면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녀의 남편과 아들도 이 기술을 통해 아주 먼 행성계인 슬렌포니아로 거주지를 옮겼고, 그녀는 지구에 남아 연구를 마치고 그들을 따라갈 작정이었다. 그렇게 이 기술에 모든 주목이 집중되어 있던 시점, ‘웜홀’이 활성화됨이 밝혀지면서 그 주목들은 한층 사그라들게 된다. ‘웜홀’은 우주에 존재하는 구멍으로, 우주의 곳곳에서 공간과 공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고차원 통로이다. 인간이 이 구멍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안정화하여 우주의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도달하는 식으로 이용할 수는 있었다. 이 웜홀을 이용하는 것이 기존의 공간 왜곡 기술과는 비교도 안 되게 경제적이므로 성간 항해 기술의 주축이 웜홀 쪽으로 완전히 이동되었고, 공간 왜곡과 냉동수면 기술 개발에 몰두해 있던 그녀로서는 이것이 아쉽기는 했지만 어

쫓던 하던 연구는 마무리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10년을 바쳐 냉동 수면 기술을 완벽히 완성시킨 그녀는 당시의 최대 규모 콘퍼런스에 이를 발표할 일정을 잡게 된다. 그러나 발표 당일 슬렌포니아행 우주선의 마지막 출항이라는 소식을 전날에야 전해듣게 되고, 발표를 마치고 서둘러 우주정거장으로 향하려 했으나 발표 직후 취재진에게 지체된 시간에 결국 그녀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구에 남겨지게 된다. 슬렌포니아에는 워홀 통로가 없어 그녀가 기술 개발에 매달려 있던 시간 동안 슬렌포니아는 굳이 우주선을 보낼 가치가 없는 항성계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절망감과 외로움에 그녀는 그 낡은 우주정거장에서 그저 언젠가 올 슬렌포니아행 우주선을 기다리며 몇백 번의 냉동수면을 통해 백일흔 살이 되도록 삶을 지속하고 있었고, 대화 속의 남자는 할머니를 우주정거장에서 모시고 나올 것을 회사에게 명령받은 직원이다. 직원은 슬렌포니아로 향하는 우주선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백 년이 넘는 시간을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데에 허비하는 할머니를 이해할 수 없지만, 더 이상 할머니에게는 그것이 아쉬운 기회비용이 아니게 된 것이다. 시간의 압축을 미치도록 갈망하던 시절과 원망하던 시절을 모두 겪어보내고, 또 잦은 냉동수면으로 인해 뇌세포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녀에게는. 그리고 말한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조차 없다면, 아무리 우주를 개척하고 인류의 외연을 확장하더라도 그곳에 매년 그렇게 남겨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우리는 점점 더 우주에 존재하는 외로움의 총합을 늘려갈 뿐인 게 아닌가.” 이 책의 제목은 이런 식으로 완성되는 문장이었다.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슬렌포니아까지의 거리는 막연히 멀고 자신의 최대 속도에는 한계가 있으니, 그녀는 자신이 개발시킨 냉동 수면 기술을 이용해 시간을 붙잡고 늘려 보았다. 그래도 그녀를 극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거리도 속도도 아니고, 그곳으로 우주선을 더는 운행할 가치가 없다는 인류의 판단이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녀의 가족들은 이미 생을 다했을 것을 그녀도 모르지 않았다. 그녀의 외로움은 가족들이 살다간 그곳의 대기권, 그 하늘을 한번 보지 못한 채로 이 행성에 남아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떻게든 해소되어야 하는 에너지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결국 그녀는 정거장 철거에 협조하려는 듯 굴며 남자를 다른 곳으로 따돌린 뒤, 혼자 자신의 초라한 셔틀을 타고 정거장을 떠나 버린다. 어째선지 언젠간 정말로 슬렌포니아에 도착할 것만 같은 노인의 셔틀이 공간을 가로질러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마무리된다. 할머니의 저 대사를 읽고 우주의 허공에 입자 혹은 파동으로 존재하는 ‘외로움’의 모습을 상상해 봤다. 하지만 감정은 그런 게 아니다. 우리 몸 밖으로 조금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안에서만 존재하는 뇌의 상태이다. 그럼에도 왜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감정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지, 광활한 우주의 규모 앞에서 인간이 무력해지는 만큼 감정 앞에서도 인간은 너무나도 무력하지 않은지. 아무리 우주가 광활하다 한들 인간에게 감정이란 언제나 지나치게 절대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이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이 책은 그것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내밀어 주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스펙트럼>에서는 우주 향해 중 조난된 희진이 다른 행성의 생명체들을 만나 잠시 그들과 함께 살았던 시간을 보여준다. 희진을 처음 봤을 때 그들은 희진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그들 중 ‘루이’라고 불리는 이가 희진을 보호해 준 것을 계기로 희진은 루이와 함께 살며 그들의 무리에 속해 있게 된다. 그들은 희진과 완전히 다른 상징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전혀 소통할 수 없으나, 그들은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사실 자체를 완전히 인정한 채로 서로를 대하는 것에 능숙해진다. 이에는 ‘선량함’의 발현이 동반된다. 그들의 수명은 길어 봐야 5년으로 인간에 비하면 매우 짧고, 그중에서도 루이는 특히 짧은 시간을 살다 죽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루이의 기록물을 전달받은 두 번째 루이는 첫 번째 루이가 그랬던 것과 같이 희진을 보살핀다. 그는 어떤 의식을 통해 첫 번째 루이의 영혼과 자의

식을 넘겨받았으므로 그럴 수 있었다. 두 번째 루이는 사소한 부분에서 첫 번째 루이와 차이가 있었지만 그곳에서 희진에게 가장 다정하고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푸는 점에서 희진의 눈에도 분명히 ‘루이’였다. 그렇게 몇 명의 루이를 더 떠나보내고 다섯 번째 루이를 막 만났을 무렵, 그들의 천적의 습격에 의해 도망치는 대열에 휩쓸려 희진은 그곳을 떠나게 되고, 그 이후 독자는 알 수 없는 20년의 시간의 공백을 두고 희진은 구조되어 지구로 돌아온다. 오직 루이의 기록 몽치만을 가지고. 이때의 나이 70의 할머니인 희진은 그 행성의 위치에 대해 세상에겐 어떤 것도 알리지 않았고, 그저 루이의 기록을 해석하는 것에 몰두하며 여생을 보낸다. 그렇게 가끔 손주인 ‘나’에게 이 등성등성한 이야기들을 반복하여 들려주는데, 그때 읽어 준 기록물의 한 문장은 이러하다. “그는 놀랍고 아름다운 생물이다.”

이 책의 이야기들은 우주의 형태와 인간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제시된 한가지 가능성을 밀어붙이지 않는다. 언젠가 어딘가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서로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 다만 나는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한 가지 가치는 항상 존재한다고 느꼈다. 방금 소개한 두 번째 이야기 <스펙트럼>에서 이야기한 ‘선량함’이 그것이다. 희진은 자신과 루이가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이 그들을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도구도 수단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서로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 수단이 있는 존재들 사이에서는 재현될 수 없을 것이라고, 희진과 루이는 서로가 완전히 ‘타자’였지만, 오히려 맹목적인 선량함은 그런 환경 속에서 발현될 수 있었다고. 서로에 대해서 알 길이 없다는 그 사실을 완전히 인정한 상태에서 발현되는 선량함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다. 그리고 ‘타자화’에 대해 비판적인 담론을 이 흐름에서 이어갈 수 있는지, 애초에 이 두 ‘타자’ 개념이 같은 차원의 것이 맞는지.

나는 이제 ‘선량함’의 개념을 ‘다른 생물체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타고난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나와 타인은 표면적으로 같은 상징언어를 공유한다고는 하지만 단어들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세부적인 의미가 모두 다르며, 기호도 달라서 ‘ 좋음’을 느끼는 대상도 방식도 모두 다르다. 그렇다면 나와 타인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것이므로 타인과 나의 관계는 <스펙트럼> 속 희진과 루이가 처음 만났을 상태와 유사한데, 이 사고는 표면적으로 알게 이해했을 때 ‘타자화’ 그 자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희진과 루이가 이후 관계를 전개해나간 방식을 보면 오히려 그 대척점에 있는 것이다. 서로의 세상이 완전히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나의 가치 판단 대상에 타인을 둘 수 없음을 인지하는 것이고, 이때 서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존중’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존중하지 않으려면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 상대방의 세계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겠지, 하고 내버려 둔 채로 그저 상대방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선량함’만 있는 그대로 발현된다면 존중은 자연스레 이루어진다. 이것이 루이와 희진이 이룬 관계이며, ‘타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상대방의 세계가 내 것과 같고 내가 이해 가능하다고 상정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이 쉬워지면서 상대방에 대한 가치 판단이 일어나고, ‘선량함’의 발현이 어려워진다. 상대방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치부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이것이 현대 사회학에서 쓰이는 ‘타자화’라는 용어의 의미에 가깝고, <스펙트럼>에서 작가가 사용한 단어 ‘타자’는 이와 아예 다른 차원에 존재하므로 독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가치이다.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내게 긍정의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타인에게도 그러할 확률과 내게 부정의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타인에게도 그러할 확률을 비교해 봤을 때, 후자의 확률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 내게 즐거운 일은 타인에게 즐겁지 않을 수 있다. 하물며 신체적으로 ‘ 좋게’ 해 주는 것이란 무엇인지 모호한 반면 신체적 고통이 무엇인지,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훨씬 분명하다. '다른 생명에게 좋음을 유발해 주고 싶은 마음'은 사전 지식이 필요하며 자칫 타자에게 무례한 침범이 일어날 수 있는 반면,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고통은 (승화와 같이 2차적으로는 전환될 수도 있으나) 1차적으로 언제나 고통이므로, 다른 생명체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조금 더 기본적인 것이다. 루이가 희진에게 베푼 선량함은 딱 이 수준까지였고, 그것이 사람을 우주에서 조난당해 떨어진 외계 행성에서도 몇십 년을 살아있게 했다. 우주는 고사하고 당장 내가 마주하고 사는 사람 한 명의 세상마저도 나는 절대 헤아릴 수 없다 한들, 우리가 타고난 이 '선량함'을 무시하지 않고 서로를 대한다면 우리는 꽤나 본질에 닿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덜 폭력적인 생명체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책을 통해 얻게 생각의 방향이 이것이다. 세상의 물리적·화학적 존재 형태는 적어도 내게는 그다지 상관이 없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가능성을 열어둘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가치는 오히려 명확해진다는 것. '분리주의'에 반대하는 것이다.

분리주의는 이 책의 첫 번째 이야기인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에 등장하는 개념이다. 인간배아시술을 통해 각종 유전병의 치료, 우월한 유전자의 조합이 가능해지면서 우월함과 열등함의 경계가 분명해진 '분리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올리브'가 시술받지 못한 사람들의 동네인 도시 외곽에 살던 '델피'를 만나 함께 분리주의에 반대하고자 다짐하게 되는 여정의 이야기이다. 분리주의, 선량함, 고통 ... 통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다루는 이 책에서 꾸준히 등장하는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키워드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공통감의 가치가 승격되는 것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각을 둔하게 하거나 외면하게 할 수 있어 자칫 폭력적이게 될 수 있으므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긍정을 불러오고자 하는 마음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라는 주장은 '분리주의에 반대함'과 이런 과정을 통해 같은 의미를 갖는다.

나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서문을 굉장히 좋아한다. '앤 드류얀을 위하여. / 공간의 광막함과 시간의 영겁에서 행성 하나와 찰나의 순간을 앤과 공유할 수 있었음은 나에게서 하나의 기쁨이었다.' 코스모스는 우주의 광활함을 설명하는 책이지만, 그 막연한 규모와 우리 존재의 불확실함을 모두 알면서도 사람과 사람이 애뜻함을 느끼는 것은 반박할 여지 없이 언제나 소중한 가치임을 보여주는 글이라고 실감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고 문득 다시 이 글이 떠올랐다.

어떤 게 본질이고 어디가 근원인지를 알아보려고 우주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많은 가설들이 과연 본질에 접근하고 있는 것인지 이 행성의 세계관을 견고히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다른 이들이 우주를 연구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나는 당장의 내 고통을 단순화하고자 하는 이유로 저 너머의 세계에 집착했었다. 대부분의 인간의 심리적 고통은 타인의, 혹은 사회적 구조의 배척과 배제에서 온다.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일들이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작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되새기면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곤 했다. 어찌 되었든 인간이고, 인간의 속도로 흐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내게 이것은 단기적이고 회피적인 사고로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내게 다른, 조금 더 '선량한'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을 찾게 도와준 이 책을 읽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여긴다.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하나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당장 인간인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선량함'에만 집중하며 그저 공생한다면, 그런 것은 정말로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야 든다.

‘잠수정’을 ‘혼자’ 탔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들

이 시집을 읽으며 가장 크게 든 생각은 이 시집의 시들을 깊게 이해하기위해 우리는 ‘나’라는 물속으로 깊게 빠져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집의 시들을 읽어 내려가기엔 이 시집은 너무나도 고뇌하고 있으며 성찰적인 태도를 지녔다. 이 시집은 우리가 살아가며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비유적으로 묘사한다. 하지만 그 비유를 꿰뚫고 나면 아주 적나라한 현실이 드러나기에 우리는 이를 더 이상 비유적이라고 이를 수 없을 것이다.

이 시집을 읽으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시는 「일인용 잠수정」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모습을 깊게 관찰하기위해 ‘혼자서’ 잠수정을 탈 필요가 있다. 잠수정을 타고 우리는 깊은 바닷속을 내려가고, 또 내려간다. 처음엔 그저 잠수정을 탄 내 상황이 행복하고 신비롭기만 하다. 하지만 마침내 공포감을 느낄 수준의 수심에 다다르면 우리는 스스로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다.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을 의심할 수 있게 되며 그 실태를 적나라하게 체험할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된 의심은 나와 나의 사회로 퍼져 모든 것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를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바닷속을 내려가고, 또 내려가며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또 다른 ‘나’와 또 다른 ‘나의 사회’를 마주하게 된다.

이 시집의 시들 중 하나인 「라디오」를 읽으며 ‘달콤해질수록 값이 싸지는 가판대의 법칙’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바나나는 익을수록 달콤해진다. 색이 검게 변한 바나나는 바나나가 초록색일 때보다, 노란색일 때보다 훨씬 높은 당도를 자랑한다. 하지만 검은 바나나는 오래되어 검다는 이유만으로 가판대 위에서 싼값의 ‘떨이’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아예 검게 변해버린 가장 달콤한 바나나는 결국 가판대에서 치움을 당한다. 이 부분의 모순은 뭘까? 달콤해지는데 왜 값이 싸지느냐? 아니다. 내면적으로 훨씬 더 성장하고 노력한 사람이 바깥으로 보이는 모습이 우월한 어떤 다른 이에게 밀려나고 치움을 당하는 상황이 모순이다. ‘달콤해질수록 값이 싸지는 가판대의 법칙’. 이 구절은 실제 사회의 모습을 굉장히 잘 꿰뚫어본 구절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부분을 보고 ‘외모지상주의’라는 개념이 떠올랐다. 물론 이 시집의 저자가 이를 의도했을지 아닐지는 그를 제외한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일단 나의 내면 속을 깊게 탐험한 나로서는 그렇다는 얘기다. 그 말인 즉슨, 나도 ‘외모지상주의’라는 개념을 보거나 체험해본 적이 있다는 말이다. 중학교 3학년 때였을까. 1학기 동안 반장이 아닌데도 열심히 봉사했던 내 친구가 2학기 반장선거에 나갔다. 모두들 내 친구를 뽑을 것 같았다. 그런데 반장 선거 며칠 전, 새로운 전학생이 왔다. 정말 귀엽고 예쁜 여자아이였기에 모두의 관심이 그 아이에게 쏠렸고 그 아이도 반장선거에 나가게 되었다. 그 후, 반장선거에서는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전학생을 뽑게 된. 약간은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 1학기 동안 열심히 봉사했던 그 친구는 마지막 2학기의 끝을 최선을 다해 봉사하며 마무리하고 싶었다며 나에게 호소했고 외모가 그렇게 강력한 무기가 될 줄은 몰랐다고 답답해했다. 물론 그 전학생을 비판하고자하는 건 아니다. 그 전학생도 2학기를 반장으로써 맡으며 아주 훌륭하게, 열심히

히 봉사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초점을 두고자하는 사실은 내 친구의 한 학기 동안의 노력이다. 그리고 이 노력을 반 친구들 모두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내 친구는 1학기 동안 반장 못지않게 우리 반과 학교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그렇게 그녀는 더욱 달콤하게 익어갔다. 하지만 결국 노랗고 예쁜 바나나에게 밀려나버렸다. 반 친구들이 전학생을 ‘외모’로 뽑지 않았을 거라고, 정확한 증거는 없을 거라고 약간은 믿고 싶었지만 그 믿음은 금세 소멸되어 터져버렸다. 주변으로 일하며 쓰레기통을 청소하던 중, 다양한 글씨체의 ‘예뻐서요’라는 글귀를 본 순간부터였다.

‘삼촌은 도축업자. 사실 피 묻은 칼보다 무서운 건 삼촌이 막 잡은 짐승의 살점을 입에 넣어줄 때’. 이 시집의 시 중 하나인 「따뜻한 비」의 한 소절이다. 나는 이 부분을 본 후, 소름이 돋았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다른 것들의 피부를, 살을 씹어 먹고 있었다는 그 잔인한 사실에, 그리고 방금 적은 ‘아무렇지 않게’라는 표현을 적은 내가 존재함에. 이 글을 적는 지금도 이에 대해 생각한다. 어려서부터 남의 것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 것에 길들여진 우리는 잠수정을 타지 않은 이상, 이 사실에 대해 깊게 성찰하지 못한다. 여기에서도 이 시의 성찰적 의미가 드러나며 나는 잠수정의 이야기를 한다. 잠수정을 타고 심해에 도착한 나는 또 온전히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식(喰), 먹는 것. 돼지고기가, 소고기가 유통되는 과정을 알고도 뻔뻔하게 남의 것을 지속하여 먹음으로써 소비해왔던 우리. 나는 이 시에서 식(喰)을 식(蝕)으로 바꿔 해석했다. 우리는 늘 좀벌레처럼 누군가를 ‘아무렇지 않게’ 갉아먹으며 살아왔다. 누군가의 속을 썩이듯 누군가의 속을 갉아먹었고 누군가의 능력을 질투하듯 누군가의 능력을 갉아먹어왔으며 누군가를 무시하듯, 어쩌면 그 사람 자체를 갉아먹어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개인주의가 만연하는 사회 속에서는 도저히 견잡을 수 없는 사실이다. 내가 중심이 되며 남들을 무시하고, 신경 쓰면서도 그 신경은 온통 질투일 때 우리는 완벽히 피폐해진다. 그 피폐함을 알고 느끼는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남을 갉아먹는다. 그들의 살을 갉아먹는다. 잠수정을 탄 나의 성찰은 이 부분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나 또한 개인주의자 중 한 명이 된 것 같아 우울하고 또 피폐해졌다.

‘개인주의’라는 말이 나와 생각난 또 다른 시는 이 시집의 제목과도 같은 「친애하는 사물들」이다. ‘우리는 생긴 것도 기질도 입맛도 닮았는데 정반대의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본다. 포용하는 사람처럼 서로의 뒤편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마주 오는 차량의 운전자처럼 무표정하게 서로를 비껴가버린 것이다.’ 이 시의 3연이다. 시의 제목만 보면 저자는 2연인 ‘아버지의 구두를 신으면 아버지가 된 것 같고 집 어귀며 책상이며 손닿던 곳은 아버지의 손 같고 구두며 옷가지며 몸에 지니던 것들은 아버지 같고 내 눈물마저도 아버지의 것인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하고자 했던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저자는 알고 보면 3연을 가장 말하고 싶어했을 것이다. 나는 저자가 이 시를 통해 가족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개인의 삶이 중요시되는 삶을 비판하고자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친애하는 사물들’이라는 이 시와 이 시집의 제목은 우리에게 더 모순적으로 다가오며 이는 역으로 주제를 강조해준다. 그리고 저자는 이러한 3연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2연으로 다시 시선을 옮겨 후회의 감정으로 자기성찰을 유도하는 식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지나친 개인주의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개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만든다. 실제로 가족들 간의 대화나 소통, 유대감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현대의 실태를 우리는 몸소 느끼고 있을 것이다. 친애하는 사물들. 우리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사물들을, 그리고 그 사람 자체를 친애할 필요가 있다.

이 시집을 통해 들여다본 ‘나’라는 속내, 그리고 ‘나의 사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적나라했다. 그랬기에 더 충격적이기도, 오히려 더 담담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인 부분도 있었다. 우리는 비로소 혼자일 때 ‘나’와 ‘나의 사회’에 대해 고뇌하기 시작한다. 우리의 이러한 고뇌는 그저

시집 하나를 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시집의 저자처럼 우리는 우리 사회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때로는 인정하고, 때로는 바꾸어야 할 것이다.

서양미술사(곰브리치 저)를 읽고

서양미술사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작품은 정선의 인왕제색도였습니다. 이 작품은 진경산수화로 과거 화가들이 이상향으로 생각했던 상상속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수를 힘차게 그려낸 명작입니다. 흑백의 조절과 조화를 통해 인왕산의 질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단순한 선과 과감한 생략이 돋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서양미술사의 발전에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한 인상주의는 일본 목판채색화의 단순성과 과감함에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저자가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보았다면 서양의 인상주의나 일본의 목판채색화에 앞서 이상적인 질서 또는 조화에서 벗어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상당히 놀랐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서양 인상주의가 아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의 대립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출현했듯이, 아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의 대립과 화해가 서양 미술의 전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해박한 지식으로 선사시대부터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의 미술 경향을 대표적인 작품과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주목한 점은 서양 미술은 이러한 대립과 화해의 과정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면서 반복, 발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립과 화해를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 사례는 피카소였다고 생각합니다. 피카소는 눈에 보이는 대상과 대상으로부터의 다양한 감정을 아는 것, 즉 대상의 모습과 감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각각 그려내고 완벽하게 배치함으로써 아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의 완벽한 화해로 대상을 그려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피카소의 작품이 지닌 의미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는 것은 이집트 미술로부터 출발하여 19세기 후반 인상주의의 출현 이전까지의 미술사를 지배했던 개념입니다. 즉 실제로 본 것을 그리기 보다는 배워서 아는 것을 그리는 형식입니다. 저자는 이집트 미술로부터 아는 것이 지니고 있는 질서, 조화의 특성을 이끌어 내고, 서양문화의 정신적 안식처인 그리스 시대, 암흑기의 중세 시대를 지나, 서양미술의 황금기를 열었던 르네상스 시대조차도 이집트 미술이 추구했던 완벽함과 조화가 여전히 살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집트 벽화를 보면 인물의 움직임이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보이는데, 이는 아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의 대립 과정에서 나오는 혼란입니다. 이러한 혼란이 나타난 이유는 미술가는 대상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방향에서 그려야만 특징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완전함을 철저히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양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미술가가 무엇을 볼 수 있었느냐가 아니라, 대상에 대해 그가 알고 있었던 것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로 인해 이집트 양식은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완벽함과 조화 그 자체를 추구했습니다.

아름다움과 완벽함의 조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 시대도 이집트 양식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법 상으로는 단축법의 도입을 통해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화해의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자연을 이상화하여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리스 조각상과 같이 균형 잡히고 아름답고 잘 생긴 육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자의 표현대로 이상적인 인물상이 보이는 한계, 즉 개성과 활력 부족을 넘어서서 그리스 미술은 생동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리스 미술가들은 이상이라는 배워서 알고 있는 세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대립의 관점은 중세시대에도 유지되었습니다. 중세시대는 시대 특성상 종교화에 국한되었고, 종교화는 아름다움의 관점이 아니라, 엄격하고 진지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미술은 문자에 대한 대용품으로 종교를 전달하는데 충실하였습니다. 이러한 종교화의 움직임은 14세기 초 이탈리아에 등장한 조토를 기점으로 달라졌습니다. 그의 주제 또한 종교화에 있었지만, 과거의 정형화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무대에서 일어나는 듯한 사실감, 즉 작품을 통해 감정을 생생히 전달하면서 르네상스의 출현을 알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눈에 보이는 것의 개념은 14세기 이후 르네상스 시대에 최초로 등장했다고 말합니다. 과학적인 원근법, 모나리자에서 나타나는 스푸마토 기법, 베네치아 학파의 색채와 표정 묘사를 보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묘사가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전통이 남아 있어 인상주의의 출현 이전까지도 실제로 본 것을 그리기보다는 배워서 아는 형태를 그리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인상주의가 출현하면서 인상주의 화가들은 시각의 움직임을 화폭에 담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시대의 출현을 알렸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이 아는 것을 끌고 가면서 화해하거나 대립하는 혁명적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티치아노로 이어지는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적 화가들과 인상주의 화가들에 대한 저자의 설명은 경영학에서 말하는 창조적 혁신, 즉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과 상당히 닮아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기업가정신의 본체는 꿈과 열정, 전문성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나, 최근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모두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으로 산업혁명과 비슷한 혁명적 사회 변화를 이루어내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이폰'이라는 제품을 통해 모바일 혁명을 넘어 새로운 사회 변화를 만들어 냈으며, 전기자동차, 화성탐사, 초고속지하열차 등 어쩌면 SF영화에서나 나올만한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천재 화가나 인상주의 화가의 열정과 전문성 또한 위에서 말한 기업가들과 비교될만합니다. 원근법과 해부학의 철저한 학습을 통해 움직임과 표정, 감정에 대한 풍부한 묘사와 함께 전체 구조에 대한 완벽성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색채와 빛에 대한 치열한 고민은 정밀한 세부 묘사 없이도 형태의 균형을 추구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관객의 시선을 유도하는 등 향후 인상주의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천재성이 노력을 통한 전문성과 결합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창조적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명한 경영학자인 말콤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법칙은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화가나 인상주의 화가들은 과거의 학문적 업적의 기반 위에서 치열한 노력과 훈련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이 만약 현대에 태어나,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미술가로서 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보유한 경영자로서도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상주의 출현 이후 주목할 점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이어지면서 미술계는 여러 분파로 나뉘어졌다는 점입니다. 화해를 강조한 입체파, 색채에 대한 이론적, 과학적 탐구보다는 색채를 통한 작가의 감정 전달을 중요시한 표현주의, 원주민들 속에서 단순하고 솔직한 것을 추구한 프리미티비즘 등 화해 또는 대립의 시도가 다양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잔의 고민이 저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잔의 사례를 보면서 미술계에서도 철학과 마찬가지로 대상, 또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고민이 매우 치열하게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상주의로 인해 흐려지는 윤곽, 채색 등은 과거 명암으로 표현되는 깊이감, 명료한 질서, 조화 등을 잃게 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선과 색채 만으로도 깊이감과 거리감을 표현했으며, 질서와 평온함을 전달했습니다. 세잔의 고민을 따라가면서 그가 왜 그토록 정물화에 집중했고, 정물화를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세잔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색채의 깊이감과 질서 등이 후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현대미술의 창시자라는 호칭이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음악이 음표와 선율로 감정을 전달하고 세상과 소통하듯이 선과 면, 색상만의 조합으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했던 현대 추상미술의 대표적 작가인 칸딘스키의 작품 속에서 세잔의 고민이 아른거렸습니다.

세잔이 화해를 시도한 대표적 사례였다면, 대립을 시도한 표현주의는 또 다른 울림이었습니다. 몽크의 절규처럼 형태의 왜곡이라는 혼란스러움은 있었지만, 아는 것에 대한 분명한 거부를 드러냈습니다. 즉, 르네상스 시대까지 이어온 아름다움, 이상향을 부인하고 삶의 추하고 아픈 면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특히, 케테 콜비츠의 '궁핍, 죽어가는 아이'라는 작품은 삶의 비참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품은 15세기 도나텔리의 '헤롯왕의 잔치'라는 작품을 보았을 때의 충격과 비슷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아름답고 엄격한 종교화, 즉 아는 것에서 벗어나, 헤롯왕에게 성 요한의 잘라진 머리를 바치는 도나텔리의 동판화는 과거 전통과의 완전한 결별 또는 반발이었습니다. 이처럼 표현주의는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아름다움의 구현이 미술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고뇌의 외침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며, 인생의 즐거운 면만을 보여주는 것은 미술가의 불성실한 태도라고 말한 몽크의 지적처럼 개인주의화된 사회에서 사회변화의 필요성, 정의 또는 연대감의 감정을 전달하는 표현주의는 미술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 주었습니다.

요컨대, 서양미술사는 아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의 대립과 화해의 과정이었습니다. 대상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 시대상의 변화 속에서 미술가들은 대립 또는 화해를 선택했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습니다. ‘미술은 존재하지 않으며, 미술가만이 있을 뿐이며,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는 미술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미술이 존재할 것인지 아닌지는 일반 대중, 우리의 태도에 따라 달려 있으며 우리의 태도가 미술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저는 저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저자의 끝맺음에 저의 의견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미술가의 고민은 세상 또는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철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길라잡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술가의 고민에 대한 이해와 학습은 철학의 또 다른 모습이며, 세상이 존재하는 한 철학에 대한 고민이 영원하듯이, 미술 또한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죽여보았는가?

남녀갈등, 젠더 이슈는 옛날부터 끊이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쟁일 것이다. 나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대립의 원인과 남성성이란 무엇인가 찾기 위해 이 책을 집어 들었다. 먼저 읽기 전에 이 글에 대한 소개를 찾아보았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국형 남자의 탄생을 적나라하게 회고하는 책’ 한국형 남자란 무엇이며 왜 이를 언급했는가? 이 책은 저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관계를 맺어왔으며 그 관계가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부모’라는 대상에 대해 깊게 연구하거나 생각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떠올리기만 해도 거대한 존재이며 이에 반(反)하는 생각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은 부모의 무한한 영향을 받고 자란다. 이에 저자는 진짜의 나를 찾기 위해 부모라는 성역을 조금씩 깨뜨려 나간다. 그렇게 한국 곳곳에 숨어있는 남성의 권위주의의 현실이 이 책을 통해 낱알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 하나의 방, 두 개의 공간 -

어렸을 때, 저자의 집 안방은 하나의 방이었으나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졌다. 안쪽은 아버지의 공간, 바깥쪽은 어머니의 공간, 방 안에 벽이나 문이 있었던 것도 아는데 그들은 하나의 공간을 둘로 나누어 사용했다. 먼저 안쪽 아버지의 공간은 ‘질서의 공간’이었다. 책장 맨 위에는 족보가 꽂혀 있었으며 아버지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말해야 한다는 등 물질적, 정신적 모든 질서가 이루어졌다. 저자는 이 곳에서 뛰어나다거나 어지르는 행위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렇듯 아버지는 질서의 근원이었으며 성스러운 존재였다.

반대로 바깥쪽 어머니의 공간은 ‘만능의 공간’이었다. 크고 작은 집안일 모두 그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그 곳은 식당이고, 거실이며 응접실 혹은 간이 화장실까지 필요에 따라 변화되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공간 속 어머니는 친근하고 따뜻한 존재였다. 두 공간은 하나의 방에서 병존하였으나 그 안에서 아버지는 기동 같은 단단한 질서를, 어머니는 따뜻한 사랑을 부여했다.

요즘 날에 이렇게 공간적으로 눈에 띄게 분리되어 있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역할은 그대로 분리되어 있는 가정이 많다. 내가 13살이었을 때,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때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께 몰래 했던 어처구니없는 질문이 떠올랐다. “엄마, 우리 아빠도 울었어?” 나에게 아버지는 이런 존재였다.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을 것 같던 강한 존재. 반면에 어머니는 내가 이런 질문을 쉽게 꺼낼 만큼 친근하고 편안한 존재였다. 이렇듯 나의 무의식 속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미 두 가지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권위적이거나 질서적인 사람이었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할 수 있다 ‘아니요’ 라고. 내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친절했으며 따뜻했다.

어쩌면 어머니보다도 말이다. 그런데 나에게 왜 두 가지 공간이 생겼을까? 이 책의 끝에 대답이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과 함께 나는 다음 차례로 넘어갔다.

- 신분의 감옥 -

저자가 5살 때, 아버지로부터 금지명령이 하나 내려왔다고 한다. '더 이상 젓을 먹어서는 안 된다.'²⁾ 나이가 찢기에 옳은 말이기도 했지만 아버지 명령엔 무조건 복종해야만 했다고 한다. 젓의 제공자는 어머니이며, 행위자는 저자였으나 그것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놀라웠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는 다른 가족들과 권위적인 관계를 이어왔고 이것을 '아버지'라는 신분의 직책으로 여겼다. 이런 행위들은 아버지 자신을 '아버지'라는 신분의 감옥에 가두었다고 한다. 그 권위적인 신분 속 아버지는 그저 돈 버는 기계이자 독재자로서 살아왔고 자연스럽게 나머지 가족과 멀어졌다.

하지만 저자 또한 신분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저자는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편한 생활을 제공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마다하지 않았기에 어머니가 세 아들 중에 자신을 가장 사랑할 줄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달콤한 환상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어머니는 죽은 막내 동생과 형을 더 좋아했다고 한다. 착각이 허물어진 저자는 충격에 빠졌고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대단한 것은 없었다. 형과 어머니 사이엔 그저 농촌생활, 화초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돌았고 그 안에 따뜻함이 넘쳤다. 그것이 바로 인간 대 인간의 소통이자 사랑이었다. 돌아보니 저자와 어머니의 관계는 권위적이었다고 한다. 어머니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을 의무로 여기며 '아들'-'어머니'라는 신분적인 관계를 가져온 저자는 형과 동생을 이길 수 없었다.

우리도 신분의 감옥에 갇혀 있진 않은가? 나는 저자와 비슷한 사람이기에 매우 공감이 되었다. 나에게도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공부를 싫어하고 노는 것을 즐겨해 어머니 속을 자주 썩이곤 했다. 나는 내 동생을 보며 한탄했고 나라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자식'이라는 신분에 갇혀 공부를 시작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보니 어머니는 동생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내가 형식적으로 한 행위들보다 가끔 하는 동생과의 이야기가, 동생의 애교가 어머니의 마음을 더 흠뻑나보다. 나 또한 '자식', '학생', '성인'이라는 감옥을 벗어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다.

- 동굴 속 황제 -

저자는 모성의 사랑 안에서 양육되며 아버지의 권위적인 질서에 의해 완성된 자신을 '동굴 속 황제'라 칭했다. 어머니는 자식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며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이었다. 대부분 사람이 이를 당연시 여겼기에 어머니의 동굴 속 황제로 살아온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다 아버지의 권위적인 행위가 자연스럽게 동굴에 편입되면 비로소 한국 남성들의 전형적인 '동굴 속 황제'가 완성된다. 그렇게 아버지라는 사람은 점점 거대해져 산보다 높게 느껴지며 우리는 그를 닮아가기 시작한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몇몇 행위들은 아버지를 닮아 있진 않은가? 것처럼 아버지는 무의식 중 깊은 영향을 미친다.

저자는 동굴 속 황제, 권위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한다. 놀랐겠지만 물론

2) 전인권, 『남자의 탄생』, 도서출판 푸른숲, 2003, 81쪽

물리적인 살인은 아니다. 자기 마음 속 깊이 자리 잡은 아버지의 존재, 즉 권위주의를 살해한다는 의미다. 우리는 나이를 먹고 독립을 하면 아버지에게 벗어나며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을 속이고 회피하는 행위이며 내면의 무의식은 아버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아버지의 OO한 모습이 너무 싫어.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하며 어느새 닮아 있는 나를 본 적이 없는가? 있다면 우리는 아직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내면의 아버지를 직면하고 하나하나 살해해나가야만 진정한 나를 찾아 햇빛을 볼 수 있다.

나의 아버지는 어쩌면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우리 아빠가 세상 아빠들 중에 제일 착할 걸”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아버지는 선하며 착하다. 하지만 그 성격이 너무 강한 탓에 우리 아버지는 거절을 잘 못한다. 조금 더 부정적이며 표현해 보자면 우유부단하며 자기주장을 못한다. 나는 그런 모습의 아버지는 존경스럽지 않았기에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오늘의 나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있다. 하기 싫은 일에도 ‘좋은 친구’, ‘선배’, ‘후배’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나는 거절도 못하고 착한 시늉을 하고 있다. 아. 얼마나 위선적인가. 아마 우리 아버지도 나와 같았을 것이라 으레 짐작해본다. 나는 이런 행위를 통해 자신에게 ‘나는 이렇게 착하다.’ 혹은 ‘이러면 나한테 고마움을 느끼겠지?’라고 외치고 있었다. 어찌 보면 이것도 권위적이고 자만적인 태도 중 하나이지 않았을까?

이렇듯 크고 작은 권위주의와 악습관들이 우리에게 숨어있는데 이 대부분은 가정에서 찾아온 것이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우리의 예상보다 더 깊숙하고 치밀하게 무의식 속에 침투해왔다. 우리는 이를 부수기 위해선 그를 찾고 죽여야만 한다. 우리의 권위적인 태도는 대부분 아버지로부터 출발하기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보길 바란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아버지를 살해하라.

한국 남자들의 권위주의는 가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 관계는 점점 발달해 학교, 회사, 군대, 국가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는 권위주의적인 사회를 조장하고 때론 남녀갈등을 조장하기도 하며 우리를 신분의 감옥에 가둔다. ‘아버지 앞에서의 나’, ‘상사 앞에서의 나’, ‘학생들 앞에서의 나’. 이렇게 남에게 권위가 우선시되는 연쇄적 권위구조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혹은 ‘학생이 교수에게’, ‘교수가 학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권위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 맺는 말 -

이렇게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의 폭력성과 이중성이 날날이 드러났다. 어쩌면 이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출발해 연쇄적·중층적 구조로 사회까지 확산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글을 읽고 자신이 동굴 속 황제로 살아오진 않았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그러나 이런 권위주의가 고착된 문화가 바뀌기는 힘들다는 사실이 답답하다. 권위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자각하고 바꾸려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한국 대부분 분야의 문화가 권위적이고 일상에 물들여져 있으며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자라난 동굴 속의 황제들이다. 언제까지 그 안에 있을 생각인가? 우리는 동굴 속의 아버지, 즉 권위주의를 살해해야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권위를 벗어 던질 때 우리는 보다 인간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감히 장담해본다.

여성들에게도 한마디 해주고 싶다. 당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라. 어쩌면 권위주의의 시작점

은 당신의 어머니일지도 모른다.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자신의 공간을 부엌이자, 응접실, 화장실로까지 만들었기에, 아버지가 자신이 황제인 줄 착각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른다. 우리 어머니가 '아내', '엄마', '여성'이 아니라 진짜 나로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글을 마친다.

두 도시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는 또 다른 이야기

여기 두 도시가 있다. 시민중심의 사회로 변모했음에도 여전히 방향을 잃은 한 도시와, 온 길거리를 포도주로 물들여 혁명으로 진격하려 하는 두 도시 말이다. 찰스 디킨스는 토마스 칼라일의 ‘프랑스 혁명’을 읽고 감명을 받아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을 집필하게 된다. 여전히 그의 앞선 소설과 마찬가지로 풍자정신은 번득였으며, 교훈적인 내용들이 담겨있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소설을 읽는 우리는, 인종차별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방황하는 한 도시와 그러한 문제를 지켜보는 다른 도시들을 떠올린다.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 당대 사회와 오늘날의 사회가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혼란스러우며, 소설 속 주요 등장인물들의 사랑과 희생 존중 등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모습들이라고 배울 수 있다.

우선 주요한 인물들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자. 주요한 인물들 즉, 찰스 디킨스가 다음 소설에서 애정을 가지고 세심하게 그리는 인물들은 폭력 앞에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살려 내는 사람들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이러한 세심함은 마네트 박사, 시드니, 찰스 세 명에게 가장 두드러지는데, 우리는 이 세 명을 각자 관용, 사랑과 희생의 비논리성, 책임의 개념이라 정의 내릴 수 있다. 마네트 박사는 양심과 지성을 놓지 않은 대가로 십팔 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그러한 긴 세월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러한 삶으로 몰고 간 사람의 조카를 자신의 사위로 맞는다. 단지 딸이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다. 이는 곧 시대의 불합리한 모순을 고발함과 동시에 관용 즉 용서와 이해의 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느꼈다. 그는 양심과 지성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투옥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디킨스는 시드니를 찰스와 닮은 모습으로 설정해 그 모습으로 무죄를 판결 받도록, 또한 그로 인해 대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플롯을 구성하였다. 시드니는 말 그대로 사랑과 희생의 고귀함 이 두 가지를 비논리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가 사랑했던 루시는 그의 아내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사랑했었다는 마음으로 그녀를 지켜주면서 끝내 스스로를 희생한다. 또한 그가 처형대 위에서 있는 모습을 비극적인 모습 대신, 숭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하며, 그를 통해 사랑과 희생의 고귀함을 보여준다. 그렇다. 사랑과 희생은 어떠한 논리로 인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 또한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에 대해 깨닫고 반성할 수 있었다.

찰스는 아버지의 악행을 바로잡으라는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후작의 신분을 버리고 영국으로 망명한다. 그의 신분을 버린 이후였음에도, 그는 자신의 하인이었던 자를 살리기 위해 파리로 향한다. 또한, 자신의 가문에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책임져야 할 자세를 보여준다. 우리는 그를 당대 프랑스 귀족계층으로서, 거칠게 말하자면 한 명의 가해자로서의 찰스 디킨스가 작품에서 그린, 당대 프랑스 귀족이 취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태도를 가진 인

물이라고 보았다. 특권 계층이 지배하는 사회가 탈피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회에서, 귀족계층 모두가 책임을 지고 뉘우쳤다면, 역사적으로 프랑스 혁명은 평화혁명으로 남았을 것이다.

일단 전체적으로 소설은 굉장히 정교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런던을 출발해 파리로 향하는 역마차에서 시작하여, 파리에서 런던으로 이동하는 역마차로 끝나는 설정은 작품 전체에서 안정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또한, 이 소설에서는 등장인물이 꽤나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갈수록 퍼즐 조각의 나열과 같이 잘 정돈된 소설 한 편을 볼 수 있었다. 제리, 도로 보수 인부, 프로스, 프로스의 동생 그리고 드파르주 부인까지. 앞서 나왔던 인물과 사건이 뒤에 다시 등장하며 모든 사건에 필연성을 부여했다. 밤마다 진흙투성이가 되는 제리의 신발의 이유부터, 프로스의 동생이 언급되고 후에 시드니를 돕는 막중한 임무를 맡는 것까지. 부자연스러웠던 인물들의 나열과 서술의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사건들이 점차 글의 후반부로 갈수록 필연성을 부여하며 자연스럽게 정리되어 정교한 구성을 가졌다고 느꼈다.

지금까지는, 글의 서두에 설명했던 바와 같이, 찰스 디킨스만의 풍자가 잘 드러난 작품이었으며, 그가 말하고자 한 사랑과 희생의 고귀함과 더불어 많은 인상 깊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소설에서 두드러지는 'Gentleman'사상(여기서의 Gentleman 사상은 신분적 의미가 아닌 이후 사회계층을 형성하였을 때의 개념을 의미)과 그것이 한계점을 뜻하고 있음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려 한다. 짧게 설명하자면, 여기서 'Gentleman'사상이란 물질주의적으로 변모하는 영국 사회가 전통적인 영국의 'Gentleman'의 정신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찰스 디킨스는 세속적인 신사의 정신을 추구한 것이 아닌 'Spiritual Gentleman' 즉 정신적 신사를 지향하는 내용을 담은 사상을 내세웠지만, 이 또한 한계에 봉착한다.

그렇다면 찰스 디킨스의 이러한 사상이 드러난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자. 작품에서 마네트 박사는 관용적인 인물이며, 그를 옛 주인으로 모셨던 드파르주는 박사를 존경한다. 또한 자비스는 은행의 잡무를 도맡는 제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고 훗날 그가 잘못 행동했던 일들을 눈감아준다. 박사인 마네트와 전문 직업 종사자인 자비스는 하위 계층으로 그려진 이들을 포용적으로 바라본다. 또한 이 중 제리를,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남편으로 그려낸 것도 이상하다 느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일들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대부분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수평적 관계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었던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이다. 더 높은 계급의 인물들이 더 낮은 계급의 인물들을 포용하는 모습들은, 필자는 마치 찰스 디킨스가 'Gentleman'사상의 필요성을 기술한다고 느꼈다.

이번에는 변호사 스트라이버에 대해서 살펴보자. 스트라이버는 루시의 외적인 요소를 보고 그녀를 원하게 되는데, 그녀가 스스로를 사랑할 것이라고 믿는 이유는 자신의 신분과 돈을 기반으로 된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진정한 사랑은 돈이나 신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디킨스가 세심하게 그린 인물 중 하나인 시드니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와 더 나아가 고귀한 희생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면은 'Gentleman' 즉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는 디킨스의 다른 작품인, '크리스마스 캐럴'의 스크루지 영감과 연관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잠시 그의 다른 작품인 ‘크리스마스 캐럴’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디킨스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집필한 1840년대는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사회의 가치관이 급변하던 시기였다. 즉 영국 사회가 중시했던 전통적 가치가 점점 중요성을 잃고,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모습이 강해졌다는 의미라고 느꼈었다. 결론적으로 작중 스크루지가 외면한 주변 인물들은 전통적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고, 그의 바뀐 모습은 가치관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전 작품들을 통하여 그의 가치관을 엿보면서, 찰스 디킨스가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충분히 앞서 제시하는 내용들에 그러한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고 느꼈다.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의 한계점이 있었지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선 그의 작품이 ‘Gentleman’사상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은 여전하지만 그가 급진적으로 물질 중심적인 사회의 모습으로 변모하는 영국에 대해 반기를 든 부분은 동의한다. 이를 통해 나는 우리나라의 모습에 대입시켜 생각해보았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퇴색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나온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누군가 여론 신장에 대한 책을 읽거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책을 읽는다면 책의 내용보다는 그 사람의 이념부터 알고자 할 것이다. 사회는 개인 중심으로 변해가며, 내가 읽고자 하는 책보다, 유명인이 소개하거나 직접 쓴 대형 출판사의 책이 더 빠르게 팔린다. 물질 중심적 사회 즉 이해관계가 점점 중시되는 사회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미들이, 발전되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퇴색되어 가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즉, 번영과 다양한 민주주의 체제의 발전이 있어왔지만, 수반되는 자본주의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당시 혁명 앞에 선 프랑스와 같이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서론에 언급한 바와 동일하게, 소설 속 주인공들이 진정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습과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조지 플루이드 사건’을 되짚어보자. 이 사건은 자유의 대명사라고 칭해지는 미국에서, 위조지폐 신고로 출동한 백인 경찰이 비무장 상태인 ‘조지 플루이드’라는 흑인을 과잉 진압한 사건이다. 이는 곧 우리가, 존중과 관용이 결부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존중과 관용이 필요한 이유는 소설의 제리와 자비스를 통해 알 수 있다. 자비스는 제리를 고용인이 아닌 한 명의 동료나 인격체로 바라봄으로써, 후에 바사드를 심문할 때 도움을 받는다. 또한 소설의 끝자락에 제리가 스스로를 참회하는 모습은, 자비스는 그가 잘못했던 일들에 관용을 베풀어 함께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존중은 또 다른 존중을 만들고, 관용은 누군가의 삶에 결정적 계기가 되어주기도 한다. 백인과 흑인이 다른 신분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라는 뜻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관용과 존중을 견비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두 인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시드니를 통해 희생의 모습을 본받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한 이래로, 대부분을 개인 혹은 국가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여왔다. 미국이 자국민을 위하여 신고립주의를 선포하고 많은 나라가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것과 말이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를 무너트리면서까지 이해관계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희생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국가를 넘어서 하나의 세계로서, 서로를 위해 조금씩 희생하는 태도와, 공생하려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드니가 단순히 진실로 루시를 사랑했던 마음 하나로 숭고한 희생을 했듯이, 그것을 이해관계의 논리를 넘어, 하나의 지구에서 모두가 함께 산다는

이유 자체로서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봉사를 하거나 기부를 할 때에,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설립할 때에,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조금의 희생을 통해 다수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러나, 무조건적인 이해관계의 논리의 탈피는 혼란스러운 세계로부터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아 물론 그렇다고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작품에서 묘사된 것처럼, 프랑스혁명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폭력과 파괴에 무감각해지며, 황폐하고 삭막한 비인간적인 당시의 시대 상황이 그려진다. 또한, 작 중 기요틴이라는 단두대를 서술하는 영국인들을 보면서 영국인들이 어떻게 프랑스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선 냉소적인 시대 상황을 더해준다 느꼈다. 프랑스 혁명에 앞서, 마그나 카르타나 명예혁명 등 다양한 민주주의의 기반을 세운 배경 때문인지 그들은 크게 관심을 가지고 혁명을 바라보지 않는다. 혁명으로 인해 프랑스 자본이 영국으로 넘어오는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기요틴을 괴물들의 형상으로 표현할 뿐이다. 당대 영국이 앞선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여 프랑스를 도와주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보다는 더 평화로운 모습이 그려졌을 것이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두 체제의 갈림길에서 도와준 주변국들 때문인 것처럼, 주변국의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우리가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세들을 바탕으로, 홍콩의 독립이나 조지 플루이드 사건과 같은 일들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 책을 혼란스러운 두 도시의 역사 속에서 빛나는 사랑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겠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이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당대 프랑스 혁명의 잔인함의 이면과, 다른 인물들이 그려내는 모습들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찰스 디킨스의 소설에서나마 표현되었듯이, 오늘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모습과 태도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고 느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가 우려했던 또 다른 이야기였지 않을까?

존재의 의미

‘편의점 인간’이라는 책 제목을 들으면 편의점과 인간이라는 두 단어에 어떤 연관성이 있으면 제목이 ‘편의점 인간’이 되었는지 궁금증을 유발하게 한다. 인간을 편의점처럼 24시간 열심히 돌아가는 걸 비유한 내용이 담겨있는 책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책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내 예상과 비슷하게 ‘편의점 인간’은 작가인 무라타 사야카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설이다. 편의점이라는 친근감 드는 소재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책의 등장인물인 게이코와 시라하를 통하여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책의 주인공은 18년동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서른여섯 살 후루쿠라 게이코다. 주인공 게이코는 어릴 적에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공원에서 죽은 새를 보고 슬퍼하기 보다는 이거 먹자”³⁾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체육시간에 싸우는 남자아이들을 말리기 위해 남자아이의 머리를 삽으로 후려쳐서 기절시키기도 한다. 사람들이 만들어 낸 평범한 사람의 틀에 벗어난, 조금은 이상할 수도 있는 게이코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이 자신 때문에 학교에 불려가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수동적인 인간이 되기로 마음을 먹는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무슨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보다는 평범하고 모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적당히 주변사람을 모방하며 자아를 잃어버린 어른이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그때 나는 비로소 세계의 부품이 될 수 있었다. 나는 ‘지금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했다. 세계의 정상적인 부품으로서의 내가 바로 이날 확실히 탄생한 것이다.”⁴⁾ 24시간 연중무휴로 돌아가는 편의점에서 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매뉴얼에 따라 일을 하게 되면서 주인공 게이코는 자신을 ‘세계의 정상적인 부품’으로 지칭하며 쓸모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자발적인 지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은 발전된 게이코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세계에서 정상적인 부품’으로 남들에게 평범하게 보이려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모습이라고 느껴졌다.

주인공 게이코에게는 편의점이 모든 삶의 중심이다. 게이코에게는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기계처럼 점원으로서의 일을 하는 것도, 일기예보를 보는 것도 모두 편의점의 부품이 되어 쓸모 있는 존재로 남아있기 위한 것이다. 18년 동안 점원으로 있으면서 기존의 점원들이 나가고 새로운 점원들이 들어올 때 마다 말투와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들의 말투와 행동을 모방하며 다른 사람들과 같은 존재로 보이는 것에 안주한다. 점원들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다면 공감이가 되지 않더라도 같이 화를 내주고, 같이 일하는 점원이 입은 옷의 브랜드를 알아두고 색만 다르게 사서 일부러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등 세상이 원하는 모습의 껍데기를 만든다.

이런 주인공에게 새로운 점원인 시라하가 등장하면서 평범해 보이기 위해 그녀가 만들어

3) 무라타 사야카, 『편의점 인간』, 김석희, 살림출판사(2017), p15

4) 무라타 사야카, 『편의점 인간』, 김석희, 살림출판사(2017), p31

놓은 잔잔한 일상을 파괴시킨다. 시라하는 일은 제대로 안하고 규정에 어긋나는 일들을 찾아서 하고, 지각을 밥먹듯이 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멸시하는 말을 한다. 시라하에게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은 그저 결혼하기 위해 사람을 탐색하기 위한 장소일 뿐이었다. 편의점 점원부터 손님한테까지 추근대고, 미행을 하는 시라하는 결국 편의점에서 잘린다. 시라하가 편의점에서 잘리고 나서 점원들끼리 시라하에 대한 짜증이 담긴 토로를 한다. “그 나이에 편의점 알바에서 잘리면 끝이에요.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져 개죽음이나 당하면 좋겠어요!” 모두 소리내어 웃고, 나도 “그래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가 이물질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배제를 당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⁵⁾ 주인공 게이코는 사회에 섞이지 못하고 기름처럼 동동 뜨는 시라하가 잘리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이물질이 될까봐 두려움을 느끼면서 자신과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에 동질감을 느낀다.

책의 후반부에서 게이코는 결혼을 하라는 주변의 암묵적인 강요에 관여받기 싫어서, 시라하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무시당하는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동거를 한다. 동거보다는 ‘사회의 이물질로 취급받고 싶지 않아서’ 라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결혼을 목적으로 동거를 한다는 거짓 껍데기를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평범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남들의 말의 휘둘리는 게이코의 행동은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로봇, 어항에 갇힌 관상용 물고기와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괴짜같은 성격으로 모두에게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는 시라하의 모습은 사회에 배척되어 사회 혐오를 가지게 된 현대 인간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 준 인물이라고 생각되었다. ‘남자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통해 좋은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에 환멸을 느끼고 세상을 혐오하는 시라하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겹쳐져 보였기 때문이다.

“모두가 보조를 맞춰야만 하는 거죠. 30대 중반인데 왜 아직도 아르바이트를 하는가. 왜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가. 섹스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까지 태연히 물어봅니다. …… 나는 누구한테도 폐를 끼치고 있지 않은데, 단지 소수파라는 이유만으로 다들 내 인생을 간단히 강간해버려요.”⁶⁾ 라고 시라하가 말한다. 그리고 이어서 110p에서 “자기 때문에 곤란을 겪은 여자 알바생이나 여자 손님은 생각지도 않고 자신의 고통에 대한 비유로 강간이라는 말을 스스로없이 사용하는 시라하 씨를 보면서, 피해자 의식은 강한테 자신이 가해자일지 모른다고는 생각지 않는 사고 회로를 갖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⁷⁾ 라는 문장이 있다. 본인 스스로 사는 것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을 폄평하는 시라하의 모습은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숨어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악플을 남기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게 느껴져서 기억에 남는 문단이었다.

책을 읽으면서 두 인물을 통해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적어도 나는 게이코처럼 현실에 안주하고 평범한 사람인척 하는 수동적인 인간은 아닐 거야’라며 합리화 하면서도 남들과 똑같이 성적에 맞춰 대학에 가고, 취업을 위해 자격증과 공모전 준비를 하고, 기계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며, SNS에 가공된 나의 모습을 올리는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게이코의 모습과 별 다른 차이점이 없었다는 걸 느꼈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일본인들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지만, 세계의 이물질, 세계의 쓸모없는 부품으로 취급당하기 싫어서 자신의 개성을 숨기고 비슷비슷하게 보이기 위한 껍데기를 만들어내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느껴졌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사회가 만들어 놓은 미의 기준들, ‘남자는 강해야하고 여자는 남자

5) 무라타 사야카, 「편의점 인간」, 김석희, 살림출판사(2017), p93
 6) 무라타 사야카, 「편의점 인간」, 김석희, 살림출판사(2017), p109
 7) 무라타 사야카, 「편의점 인간」, 김석희, 살림출판사(2017), p110

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와 같은 구시대적 틀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익숙해져 있었는데 다행이도 이런 틀이 깨지고 있다. 세상은 구시대적 틀이 사라지고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 자신의 개성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과거에 비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숨기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똑같은 사람으로서의 인권을 존중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자유로운 활동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다양한 장르를 통해 한국을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견해를 넓혀 주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고 연대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었던 미투 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던 이유도 사람들이 자신을 사회의 부품으로 생각하기보다 감정이 있으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게이코는 편의점을 그만두면서 살아가야 할 지침을 잃어버리고 방황한다. 안주하는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 자신을 개척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여기에서 편의점은 안주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변화하는 시대처럼 게이코는 스스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세계의 쓸모 있는 부품 이상의 하나의 자아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사회에 부적응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도 살아가야 할 방향을 잡지 못하면 방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느꼈다. 내가 생각하는 미래를 위해 현재의 나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목소리를 내야할 때 제대로 내지 않았는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등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자아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과 같을 수 없다. 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아무도 사람을 억압하고 평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내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가치관에 확신을 가지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존재를 깨닫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도 나 자신한테 물어본다. 오늘의 나는 주체적인 나였는가?

참회록

전쟁 속에 버려진 주인공, 쌍둥이 루카스와 클라우스의 얘기이다. 이 책을 읽으며 단 한 순간도 불쾌하지 않았던 시간이 없다. 매우 불쾌하고 불편하며 독자들을 향하여 전달하는 메시지는 난해하고 비극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이 책의 진가는 다 읽고 난 후 책장을 덮었을 때 드러난다.

전쟁의 비극.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 이들의 비극은 전쟁을 피해 할머니 댁으로 가면서 시작된다. 도덕성과 윤리 개념이 결여된 할머니 밑에서 자라나는 이 쌍둥이들을 보면 마치 신생아와 같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으며, 어떤 것이든 학습하고 또 학습한다. 비록 그것이 독자들이 보는 도덕의 기준에서 한참 벗어났을지라도 그들은 개념치 않고 배워간다. 그들은 외국어를 단 몇 주 만에 독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점점 더 교묘한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살인에 익숙해지기 위해 짐승을 죽이고 고통을 학습하기 위해 서로의 몸을 가죽 벨트로 때리는 가학적인 장면도 나온다. 모든 것은 생존하는 일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 모든 장면 중 내게 가장 충격을 주었던 것은 문학이라는 틀 안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외설적 요소도, 나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전쟁 속 아이들의 참담한 환경도 아니었다.

책을 읽을수록 쌍둥이와 생각을 공유하고 자연스레 그들의 범죄에 나도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독자들이 책을 읽을 때 몰입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 장면에 제대로 들어가 상황을 즐길 수 있는가? 그들이 몰래 살인을 할 때 나는 옆에 있었다. 폭발로 큰 소리가 나며 시체가 사방으로 튕길 때, 혹여 누가 현장을 볼까 마음이 조급해졌다. 돈을 요구하며 나이 든 사제를 협박할 때 나는 왜 더 많은 돈을 사제에게 요구하지 않는지 그들에게 물었다. 우리는 단절된 소통을 하며 이야기를 써 내려갔다.

말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을 이런 내 생각에 대해, 이 글을 읽고 누군가는 나의 도덕성에 대해 의문을 던질 수 있다. 어떻게 범죄 현장에 몰입하여 사건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나는 범죄 현장의 낯선 상황을 즐겼으므로 이 누군가의 기준인 도덕성과 윤리와는 한참 먼 곳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허점이 명백히 드러난다.

첫째로, 나의 도덕성에 의문을 던진 사람은, 책에 대해 깊은 고찰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일 수 있다. 책은 소통하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었던가.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제시하는 하나의 산책로라 생각한다. 또한 이 간접적인 경험은 독자에게 새로움과 낯설음을 창출하며 몰입감을 높여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의문을 제시한 그 누군가는 책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상황에 대한 몰입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간과하였다.

둘째로 사람의 도덕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필요할 때가 찾아온 것이다. 사람의 도덕성의 기준이란 무엇일까? 책 속에서 잔인하고 냉혈한 쌍둥이는 누군가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고마운 이웃이었다. 그 이웃들은 그들을 작은 천사라 불렀으며 자신들의 생활이 어려울 때 나눠준 염소젖이 참 고마웠을 것이다. 쌍둥이의 행동은 그들이 학습하지 못한 것이지만 같잖은 가식이

나 땅에 떨어질 위선이 아닌 진심이 담긴 본능적 행동이었음을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알 수 있다. 반면에 이렇게 착한 쌍둥이들은 다른 이들에게는 악마의 자식들이라 불렸다. 어린 나이에 높은 사제를 협박하고 새로운 배움을 얻으려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그들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덕적 기준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쌍둥이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환기해야 한다. 쌍둥이에게 도움을 받으며 감사했던 사람들도, 쌍둥이에게 해를 당하며 욕했던 다른 사람들도 결국 쌍둥이의 각각 다른 이면을 보았을 뿐, 그들이 가진 이면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쌍둥이에게 도움을 받은 옆집 여자는 한 번도 쌍둥이를 악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들이 그녀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왔을 때도 별다른 반감 없이 순수히 반겨주었고, 쌍둥이의 이웃 페트로노는 쌍둥이 동생 루카스의 범죄를 알고도 여전히 순수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해 냈다.

같은 맥락으로, 우편을 전하러 오다 쌍둥이 형제의 발길질에 넘어진 우편배달부는 이들을 악한 존재로 인식하여 이후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렇다. 누군가 내 글을 읽고 나의 도덕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을 때는, 나의 이면 중 하나를 보고 판단한 것이다. 단지 내가 책 속에서 겪은 경험들이 불러들인 생각을 나타낸 이 짧은 글만 보고서는 누군가 내가 아주 잔인하고 공허한 마음이 일절 없는 사람이라 생각한 것이다. 쌍둥이의 잔인한 면을 보고 그들을 악마라고 불렀던 사람들처럼 말이다.

이처럼 책 속에서 우리는 실제 사람들의 모습들을 만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인식하여 한번 악한 사람은 계속 낙인을 찍어 그 족쇄에 가두며 그들 스스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쉽지 않게 만든다. 그리고 선하게 인식했던 것을 악한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 또한 있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는 쉽지 않다.

책장을 덮고 나서야 깨달았다. 각각의 모든 인류는, 모든 존재는 인생에서 만났던 누군가에게 자신은 악한 사람이었음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완전하지 못한 존재들이 사는 이 세상에 절대 선은 없기에, 절대 악 또한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사람들의 각기 다른 이면들을 모두 인정한 인물이 책 속에 있었다는 것이다. 바로 쌍둥이이다.

성당 신부님의 하녀는 쌍둥이에게 매우 친절했다. 피죄죄한 모습의 두 사람을 찌겼고, 따뜻한 옷가지를 내어 주었으며 추운 겨울에 따뜻한 실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 순간에 쌍둥이들은 감사함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그녀를 좋은 사람이라 속단하지 않았다.

그녀가 헐벗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시늉을 하며 도리어 자신의 입속으로 음식을 가져갔을 때, 이를 목격한 쌍둥이는 그녀를 폭약으로 다치게 했지만 별을 준 그 당시에도 역시 불쌍한 사람을 놀리는 그녀를 악한 사람이라 속단하지 않았다.

쌍둥이들은 하녀가 가진 성격의 이면을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단지 하나의 사건만으로 그녀를 판단하려 들지 않았다. 그저 순간순간 그녀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발견했을 뿐이다. 쌍둥이의 행동을 보며 생각해보건대, 그들에게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결코 따로 경계지어 분리된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각 상황에 대한 행동의 선택이 있을 뿐인 것이다.

이 책이 주는 궁극적인 교훈을 생각해본다면, 사람의 이면을 보라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아주 천사 같은 사람일지라도 다른 어떤 이에게는 악마의 자식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성인군자라 해도 결국 그를 많은 사람이 선하다고 인식할 뿐, 그의 이면은 당연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한번 범죄자로 낙인찍힌 사람이 사회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의 문제와 연결 지을 수 있으며, 거짓말한 사람이 또다시 거짓말을 할 것이라 못 박아 버리는 순간,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을 하나의 틀로만 볼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것은 특정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 모든 인류의 공통적 특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의 성격을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어도 객관적으로 정의 내릴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 못하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약한 부분을 비난하고 멸시하는 것은 결국 완전하지 못한 자신을 스스로 욕하는 일이기 때문 일 것이다.

우리가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포용이 필요하며 용서가 필요하고 과거보다는 미래에 집중하는 정신력이 필요하다.

현대 사회는 어떠한가. 포용과 용서가 넘쳐나며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죄로 까맣게 얼룩진, 각자의 손에 돌을 들고 눈앞에 있는 죄 있는 한 사람을 내려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했던 모든 시선과 마음을 참회한다. 모든 더러움을 벗을 수는 없지만, 나 역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 약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려 한다. 인간의 한계와 그 유한함을 인정한다. 돌을 놓자. 자유로워지자.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인간에게서 비롯된 모든 철학과 헛된 이상에서 벗어나 변하지 않는 진리만을 추구하자.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 우리는 과연 언제부터 다른 누구를 욕하며 무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존재였는가를 생각하게 만든 책이었다.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재고

영화 <박화영>은 엄마에게 버림받은 18세 박화영과 비행을 일삼는 또래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립과 빈곤 문제를 그 어떤 영화보다 잔인할 만큼 선명하게 그려냈다. 자극적인 수위와 교훈성을 넘나드는 이 영화는 그 자체로 논란을 빚어낸다. 갈등을 지나치게 폭력적으로 다루며 가난한 청소년을 쓰레기처럼 일반화한 감독의 재현 방식을 비판하는 주장과 애써 외면해온 고립과 폭력의 형상을 들춰 우리 시대 빈곤의 기이한 풍경을 재고하게 했다는 주장. 이 글의 저자는 후자에 한 표를 던진다. 빈곤이라는 주제는 현대 사회에서 적지 않게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중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의 피해함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은 과연 몇이나 될까? 이 글의 저자가 가졌던 의문이다. 저자는 빈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편견과 그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모순들을 다양한 사람들의 수많은 생각들로 함께 고민해보고자 했다. 우리 사회에서 빈곤에 내재되어 있는 무수한 편견들은 무엇인가? 해결책은 있는 것인가? 이 의문점들을 다룬 10가지 인터뷰 중 2가지 인터뷰가 나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한강르네상스를 이루겠다는 정치인의 야심찬 계획에서 시작된 용산 개발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이 발표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개발 방안에 따라 용산역 인근의 강제 철거가 시작됐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용산 지역 철거민들은 이주 대책과 보상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시작했고, 전국 15개 재개발지역 철거민들의 연대 참여로 농성은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농성 25시간 만에 경찰특공대에 의한 강제 진압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발생한 용산참사는 현재까지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 사건으로 남았다.

용산참사의 배경에는 두 서울특별시장 이명박과 오세훈의 도시개발 정책이 존재한다. 1970년대 판자촌 철거부터 2000년대 뉴타운 건설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경제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어온 도시개발 사업의 이면에는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다. ‘개발에 묶인 땅은 투자의 대상으로 거듭나며 몸값을 올리지만 그곳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은 쌓여 있던 먼지처럼 청소되어 버린다.’ 이 책에 등장하는 구절이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화려한 발전 그 뒤에 숨겨진 많은 이들의 피눈물이 생생하게 와닿는 구절이었다. 평생을, 어쩌면 대를 이어 지켜온 그들의 삶의 터전은 사회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잔인하게 사라졌다. 여기서 우리는 ‘개발의 진정한 수혜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물음표를 던져야한다.

용산참사 문제에 천착해온 이원호 활동가는 ‘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이지?’하고 묻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저렴한 주거지를 개발하여 값비싼 아파트를 지으면 이 동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동네가 아닌 상류층을 위한 동네로 둔갑한다.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으로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갖게 하겠다는 도시개발의 포부는 소수의 다주택자들의 독점으로 처참히 무산되었다.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택 소유에 대해 고민하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의 습격을 방어하는데 허리가 휘다. ‘모두가 주택 걱정 없는 삶’을 위해 자행된 개발은 그렇게 대다수의 국

민들에게 고통만 남긴 채 본래 목적을 상실했다.

설상가상으로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살펴야 할 공공기관인 구청은 관내 개발지역 세입자들을 그저 생떼거리를 쓰기 바쁜 ‘떼잡이’로 칭했고, 청와대는 자극적인 사건으로 이를 덮는 보도 지침을 내렸다. 국정원과 경찰의 조직적인 여론조작 및 방송통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소중한 6개의 생명이 별이 된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사업이 무너졌다는 자본의 입장에 의해 무시당했다. 나는 이 대목을 접했을 때, 우리 사회의 민낯을 부정하고 싶었다. 국가란 무엇인가. 이게 정녕 우리가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 국가가 자행한 행동인가. 이 물음표의 끝에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가.

철거민들의 빼앗긴 10여년의 세월 그 속에서 우리는 ‘연대’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철거민들의 문제를 고립된 개발구역의 소수의 문제로 바라보고 이들에게 단지 힘을 보태주는 것.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연대’라 칭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연대는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이 문제들이 나와 어떻게 연결될지 고민해보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시작된다. ‘여기, 사람이 있다.’는 용산 참사 당시 불구덩이 속에서 경찰 진압을 당해야 했던 그들의 절규로부터 나온 말이다. 우리는 저소득층, 중류층, 상류층으로 구분되기 이전에 모두 같은 사람이다. 누군가의 질 높은 삶을 위해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려야 한다면 그 개발에는 반드시 문제점이 존재한다. 철거민들의 처지를 그저 ‘다른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여기지 않고 결국 나와 연결될 문제를 해결할 ‘기회’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연대가 아닐까.

IMF 외환위기 이후 달라진 빈곤의 양상과 함께 붙여진 ‘사회적 빈곤’, ‘노동 빈곤’ 등의 빈곤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반이 되었다. ‘모든 가난한 국민에게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는 이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일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비롯한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급여 등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최근 수급자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형화된 형식의 수급자격은 많은 변수와 각각의 사연을 법의 사각지대로 몰아넣었다. 최옥란 씨는 청계천에서 노점을 하면서도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수급 자격을 유지해야 했고 아이 양육권을 위해 모은 재산 때문에 수급 자격 탈락 위기에 봉착했다. 그녀는 이러한 현실에 분노하여 ‘최저생계비 현실화 농성’에 참여하여 행동을 주도했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최옥란 씨의 투쟁을 이어받은 ‘기초법 연석회의’에서 탄생한 ‘빈곤사회연대’가 지금까지 반빈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빈곤사회연대는 하나의 연대체이자 사회단체로써 직간접적으로 여러 빈곤 문제들에 목소리를 내며 빈곤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 사회의 문제 중 빈곤은 뺄 수 없는 논제이다. 따라서 현재는 빈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절실한 시점인데, 우리가 빈곤을 대하는 방식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이 사람이 가진 개인적인 특질을 집단 전체로 덮어씌울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자체가 약자에 대한 사회의 태도예요’. 빈곤사회연대가 설명한 약자성이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실패와 성공을 경험했는지,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의 문제는 외면받은 지 오래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현재 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 정의 내리기 바쁘다. 김윤영 활동가는 ‘빈곤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대한 혐오와 부정적인 프레임이 인식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재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올바른 시선을 심어줘야 할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은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소득 인정액, 부양의무자기준, 근로능력의 유무 등 제도가 만든 엄격한 기준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국가에 의존적’이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찍는 아찔한 실수를 범하곤 한다. 가난한 이의 삶과 신체를 소품처럼 활용한 광고는 일상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

아볼 수 있다. ‘베푼이 필요한’ 빈민들의 자극적인 이미지는 그 자체가 편견으로 각인된다. 사람들은 이처럼 기구한 사연을 지닌 사회적 약자에게 동정의 눈길과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반면, 자립을 강요하는 자본주의경제 시스템에서 낙오되어 구조적 불평등의 개선과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날카로운 지적의 눈초리로 그들의 무력함을 비판한다. 그들이 살아온 삶의 맥락과 조건은 편견의 눈초리에 짓밟히고 의존과 연대가 상실된 사회가 약자들을 더욱더 짓누른다.

빈곤한 사람은 극빈한 사람, 불쌍한 사람, 의존적 인간이라는 헛된 편견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가 바로 빈곤사회연대이다. 2010년 통합전산망 도입에 따라 시작된 일제조사로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가난한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비판하고 스스로 세상을 저버리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다. 이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 여겨질만큼 목소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부양의무제의 사각지대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광화문 농성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시작으로 삶에 대한 용기 그리고 그 너머 그들의 권리를 찾아가는 날개를 펼쳤다. 기댈 곳도 혼자 싸울 힘도 없던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희망이 되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과감히 무찔렀다. 그렇게 시작된 날개짓으로 결국 그들은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고 마침내 부양의무자라는 말은 법안 전체에서 종적을 감췄다.

분노는 흔히 부정적 감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동력은 분노였다. 세상의 부당함에 대한 분노, 존중받지 못하는 삶에 대한 분노. 그 모든 분노들이 모여 희망의 거름이 되었다. 빈곤사회연대가 꿈꾸는 세계는 빈곤 없는 세상이다. 처음엔 나도 모르게 코웃음을 치고 말았다. 빈곤 없는 세상은 그야말로 꿈의 나라가 아닌가? 그러나 그들이 꿈꾸는 빈곤 없는 세상은 완전한 형태가 갖춰지지 않았다. 그저 빈곤이 철폐된 세상을 향해 계속 나아가며 그들의 유토피아를 실현해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이 꿈꾸는 세계가 아닐까 싶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우리 사회에 대해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졌다. 내가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 법과 제도들, 국민을 수호하는 경찰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발로 뛰는 언론들. 그 모든 것들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현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과연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가? 강자가 웃을수록 약자는 피눈물을 흘리는 이 구조가 만연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직면한 빈곤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 사실 당장 제도적인 개혁을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실천하는 것이 차선책일 것이다. 우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빈곤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처럼 부정적 시선을 지니는 것이 아닌 그저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한다. 또한 ‘빈곤’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나와도 연결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개개인의 목소리가 모이면 하나의 큰 외침이 된다. ‘광화문 농성장’과 같은 공공의 장을 더욱더 활성화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지대한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구조의 모순으로 인해 약자로 내몰린 삶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힘든 숨을 내쉬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반빈곤운동은 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투쟁하고 빈곤이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문제의 끝에는 나와 우리 가족의 문제가 있다. 이 책을 우리 사회 속 빈곤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일지 고려해 봐야 한다.

이물질의 시대

‘현대 사회의 거죽을 쓴 석기 시대.’ 자신을 이물질로 배척하는 세상에 불만을 가진 등장인물인 시라하가 현대 사회를 지칭하는 말이다. 시라하의 말처럼, 정말로 우리가 살고있는 이 시대는 현대 사회의 거죽을 쓴 석기 시대와 같다. 석기 시대의 사람은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다. 힘이 센 남성(혹은 여성)이 사냥을 하고 사냥을 하지 못하는 여성은 아이를 낳는다. 무리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인간은 배척당하거나 방치된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현대 사회에도 암묵적으로 명시된 사회적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무라타 사야카의 「편의점 인간」은 보통 사람들이 되기 위한 이물질의 이야기이다. 이물질은 사냥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제 기능을 상실한 사람들을 말한다. 이물질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평생 사회적 기준을 쫓으며 살아가게 된다. 보통 사람인 척하지 않으면 이물질은 소위 정상적이지 않은 세상으로 칭해지는 ‘저쪽’ 세상으로 배척되고 보통 사람들에게 의해 인생을 유린당한다. 보통 사람인 척하는 이물질 중 하나인 게이코는 18년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다. 어렸을 때부터 사고하는 방식이 남들과는 달랐던 게이코는 서른여섯 살이라는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고 연애도 하지 않으며 직장 생활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편의점 일에만 몰두한다. 보통 사람들에게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지만, 게이코는 오히려 편의점 속에서 소속감과 안도감을 느낀다. 세상에서 게이코는 어딘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배척당하지만 완벽한 매뉴얼이 존재하는 편의점에서는 매뉴얼만 기막히게 따라준다면 사람들은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다. 성별도 나이도 결혼 여부도 상관없이 같은 제복을 걸치기만 하면 같은 점원이라는 균등한 존재가 된다. 게이코의 표현을 빌리자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비로소 세계의 정상적인 부품이 된 것이다. 게이코에게 있어서 편의점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해주는 생존책이다. 같은 점원으로서 일하는 스가와라, 이와즈미, 이즈미에게서 말투와 감정을 배우고, 30대 여성의 옷차림을 배운다. 게이코는 점원에게서 배운 말투와 감정, 옷차림을 흉내냄으로써 평범한 사람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 게이코는 이것을 ‘전염’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라는 존재는 이렇게 서로 전염하면서 인간임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게이코의 생각처럼,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나’라는 존재가 독단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다. 살아가면서 많은 타인의 영향을 받고 몸 구석구석에 타인의 손길이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전염하면서 살아왔기에 서로가 만들어놓은 기준에서 떨어지지 못하는 걸지도 모른다.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고, 타인과 세상의 시선과 상관없이 단독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에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정상적인, 보통의 사람이다. 게이코 같은 사람이 우리가 살고있는 이 시대에서 소수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책을 읽는 독자 모두 게이코를 보고 자신의 모습을 투영했을 것이다. 대학에 가야 취직을 할 수 있다, 결혼은 n살에 해야 하며 군대는 n살에 가야한다, 살면서 연애나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루저 인생이다... 우리는 이미 사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게이코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암묵적인 사

회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아등바등 사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한 인물이다. 게이코에게는 편의점이라는 공간이라도 있지만, 우리는 기준에 맞추라는 세상의 요구를 피해서 쉴 공간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게이코도 편의점 속에서 영원히 현실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편의점 밖에서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매뉴얼이 없기에 게이코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편의점에서 안도감을 느끼는 것도 잠시일 뿐, 편의점 밖으로 나가면 게이코는 다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되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게이코의 인생을 멋대로 판단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 고민하던 게이코는 시라하에게 동거를 제안한다. 시라하는 꽤 고전적인 생각을 가진 인물이다. 과거 석기 시대의 약육강식의 생활을 옳다고 믿고 남녀평등 사상 같은 현대 사상에는 관심이 없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꼰대’ 스타일이다. 서른이 넘도록 변변치 못한 직장 생활을 했으며 연애와 결혼도 하지 못한다. 본인의 무능력과 짝 막힌 생각으로 자초한 일들을 본인의 힘으로 바꿔보려는 의지 없이 세상 탓으로 돌려버리며 원망만 하는 피해의식과 분노가 가득 찬 인물이다. 시라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소수파라는 이유로 자신의 인생을 멋대로 강간해버린다고 게이코에게 신세 한탄을 하게 되고, 게이코는 시라하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게 된다. 그렇게 시라하는 세상으로부터 숨기 위해, 게이코는 남자와 동거함으로써 평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서로 동거를 시작한다. 시라하와 동거를 시작한 게이코는 편의점 밖에서 자신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남자와 동거한다는 사실에 게이코의 가족과 친구들은 어느 때보다도 기뻐하며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추측하기에 이른다. 게이코가 드디어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듯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현대 사회는 석기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리에 끼지 못하면 규탄받는 것이 현대 사회나 석기 시대의 암묵적인 규칙이다. 주변만 가볍게 둘러봐도, 다른 사람을 본인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함부로 낙인찍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모습을 보면 개인의 개성 존중이니, 다양성 존중이니 하는 말들은 모두 부질없는 것 같다. 보통의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이 되어 또 다른 보통의 사람들을 낳는다. 이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세상이 마치 보통 사람들을 생산하는 거대한 공장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공장 속의 부속품일 것이다.

게이코는 시라하와 동거를 시작한 후 편의점 점원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린다. 게이코를 점원이라는 균등한 존재로 대우해주던 편의점 점원들도 게이코를 그저 무리의 암컷으로 여기기 시작한다. 이제 게이코에게도 세상의 요구를 피해 쉴 공간이 없다. 게이코는 이에 18년 동안 몸담았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게이코가 취직하면 자신이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숨을 수 있다는 시라하의 주장에 반강제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게 된다. 어쩌면 게이코에게 편의점이라는 공간이 없어진 것은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도망갈 곳은 없다는 것을 의미할 지도 모른다. 취업 면접날, 게이코가 시라하의 손을 뿌리치고 본인이 편의점 점원이라는 동물일 수밖에 없다며 선언하는 마지막 장면을 읽었을 때, 속에서 무엇인지 모를 안도감이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보통의 사람들이 보통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게이코가 게이코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여겼나 보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게이코를 내버려두어도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게이코가 역지로 보통 사람들인척하며 애쓰면서 살지 않기를 원했지만, 속으로는 게이코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편의점 인간은 우리와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책을 읽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한다. “평범하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껏 이상하지 않게 생각했던 사회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이 책에서 나오는, 자신의 기준으로 게이코와 시라하를 판단하는 사람들과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는 게이코와 시라하. 둘 중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게이코와 시라하를 안쓰럽게 여길 것이고 본인의 잣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욕할 것이지만, 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게이코와 시라하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분명 사람들은 책 속 세상이 아닌 현실 속에서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위해 위로를 던져줄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재는 이 나이 먹도록 뭐 했다.’, ‘다른 애는 안 그러는데 재는 왜 저럴까.’ … 한 번쯤은 들어본 말 아닌가? 그리고 한 번쯤은 생각해보거나, 입 밖으로 내뱉어본 말들 아닌가? 이 책은 우리의 모순됨을 명백히 밝혀주는 책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판결함과 동시에 판결된다. 마치 톱니바퀴처럼 보통 사람의 삶과 이물질의 삶을 번갈아 가면서 살아간다. 그렇기에 우리는 보통 사람인 동시에 이물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수가 원하는 답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소수가 원하는 답을 인정하기를 어려워한다. 이미 사회 깊숙이 뿌리 내린 ‘정상’의 범주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지금 우리의 사회는 세상의 뒤통무니만 쫓아다니는 이물질로 가득차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시대는 더 이상 석기 시대가 아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시대는 진화의 단계에 돌입했다. 곧 우리에게 이물질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는 모든 우주인을 위하여

[미래 과학 사회를 상상하며]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미래는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그것은 분명 디스토피아일 것이다. 어느 곳이든 사회적 약자는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갈등 없는 사회란 존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빚어진 갈등과 관련된 소식을 접하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유토피아는 어디 있는가에 대한 생각에 잠기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단 한 번도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일지 자세히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맞춤형 아이나 인간 복제 기술이 널리 퍼져 있겠거니, 하고 어렵풋하게나마 생각하고 있었다. 하늘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나는 자동차나 인간을 나노 단위로 쪼개는 순간이동 연구 같은 것들을 상상한 적도 있었지만 머릿속에서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본 적은 없었다. 그런 와중에도 사회적 갈등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해소될 것인지는 생각만 해도 피곤했기 때문에 그다지 깊이 있게 고려해보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게으른 나에게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미래의 그림자에 대한 대략적인 틀을 보여준 것이 바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다.

[길을 아는 사람들]

소설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이다. 소피에게 남긴 데이지의 편지로 시작하는 이 소설은 앞서 언급한 미래 과학사회의 어두운 면을 극대화했다고 생각한다. 태생에 따라 사는 지역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개조인은 매일 밤 쇼와 파티를 즐기지만 비개조인은 개조인들을 위해 밤낮없이 일한다. 비현실적이면서도 가능성 없는 일은 아닌 이러한 장면에서도 작가가 그려낸 미래 사회에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얼굴에 흉터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웃는 올리브를 동정한 어떤 노인이 올리브가 거절하는데도 한사코 크레딧 칩을 쥐여주는 장면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서 장애인을 보면 안쓰러워하고, 동정하면서 손에 돈을 쥐여주는 일이 있다고 한다. 작가가 이 부분을 짚어낸 것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고개를 마구 끄덕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도드라지는 부분은 지구 밖 '마을'에서는 지구에서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게 되고,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자면 불행 따위는 없고 행복을 비롯한 긍정적인 감정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인공 자궁에서 태어나는 게 당연한 아이들, 전기가 통하는 울타리의 존재를 뺏겼한 꽃이라고 인식하는 것, 서로에 대한 성애적 감정을 지니지 않는 게 당연한 점 등이다. 특히 마지막으로 짚은 성애에 대한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로맨스에 너무 길들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드라마, 영화, 소설에서

도 로맨스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어떤 작품에서는 두서없이 갑작스레 등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다. 지구에 도착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차별과 싸우게 됨으로써 조금은 괴롭지만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을 꾸려가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데이지의 편지를 읽고 나자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랑은 앞에서 언급했던 미디어에서 비추는 연인 간의 사랑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소피에게 쓰는 데이지의 편지를 모두 읽고 나자 데이지는 지구에서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아마 데이지는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존경의 대상으로 비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소설집에서 데이지처럼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 인물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서도 등장한다. 이 소설에서 안나는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안다고 했다. 이 부분을 읽고 디즈니의 <모아나>라는 만화영화가 떠올랐다. 그는 항해하며 살아가던 조상들이 섬에서 나가지 못하게 된 이유와 자신을 부르는 바다, 그리고 섬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나는 길을 알아, 나는 모아나야.”라고 외친다.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것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삶은 바다와 우주를 향해 가는 것처럼 불안의 연속이라고 생각한다. 이 불안감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나가는 것, 나아가 캄캄한 곳으로 내딛는 발걸음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소설 속 인물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자신이 갈 길을 알 수 있는 인물로는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에 등장하는 재경을 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터널을 통과한 가운데 또한 재경이 만들어 둔 길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인류를 위한 한 걸음을 크게 내디딘 점에서 개척자라고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가운데이야말로 진정한 개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설 안에서 재경은 길을 직접 만들어 내고, 마지막에는 바다로 힘차게 다이빙을 한다. 이 부분과 서희가 전해주는 재경의 말을 듣고서 영화 <윤희에게>를 떠올릴 수 있었다. 영화에서 준은 이런 말을 한다. “뭐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질 때가 있잖아?”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내딛는 한 발자국이 그 누군가에게 있어서 정말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되리라 생각한다. 이는 재경에게는 출발 전날 바다로 향해 자신의 삶을 찾으러 떠날 도약이고, 가운데에게는 그것이 터널을 넘어서 바라보는 건너편의 우주에서 바라보는 풍경이다.

[다루기 어려운 것들]

익숙하지 않은 대상과 마주할 때 우리는 무척이나 조심스러워진다. 처음 보는 기기를 만질 때,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때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으로 외계의 생명체와 조우하게 된다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섬세하게, 그렇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로 외계인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는 특히 「스펙트럼」의 일부에서 잘 나타난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계 생명체들과 접촉을 시도했다가 탐사선을 잃고 만 모습은 외부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노스 센티넬 아일랜드’를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외계인의 존재를 처음 지각한다는 부분에서 나는 「스펙트럼」과 「공생 가설」의 이야기가 서로 이어지는 소설들이라고 생각했다. 두 소설이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한 것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러길 바랐기 때문이 아닐까? 최초의 조우자 희진과 최초의 전달자 류드밀라가 같은 대상을 만났길 바라는 마음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

다. 이 넓고도 넓은 우주에서 미세한 우주 먼지 만큼 작은 각각의 인간일지라도 같은 대상을 추억하며 언젠가는 둘이 우주에서 만날 수 있길 바랐기 때문이다. 이 소설집의 표지처럼 아름다운 류드밀라의 행성을 희진도 발견했길 바랐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소설을 읽다 보면 지성을 가진 외계 생명체의 행성 위치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할 수밖에 없었던 희진의 사랑과 의지력에 새삼 감탄하게 된다. 지구에 와서도 루이의 기록을 좇으려 하는 희진은 그 행성에 각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여기서는 로맨스적인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행성과 그곳에 사는 생명체들을 훼손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끝까지 지켜낸 희진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비슷한 종류가 아니었을까?

이처럼 감정은 어려운 것이다. 「감정의 물성」을 읽으면서 이를 절실하게 느꼈다. 어찌 보면 부정적인 감정을 손에 쥘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우울은 중독적이라는 사실이다. 한번 우울감에 잠긴 사람은 ‘우울한 나 자신’에 도취해서 자꾸만 우울한 기억을 끄집어내고 자신이 이렇게나 한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끝없는 우울의 수렁에 빠진다.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음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때 힐링과 관련된 책들이 서점의 가장 잘 보이는 매대를 차지했던 사실을 생각해보자. 감정의 물성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욱 많이 팔렸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울은 중독되기에 십상이기 때문에 책에서 나온 감정의 물성은 충분히 마약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손안에 쥐고 다루는 감정이란 무슨 의미일까?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한 단어로, 그리고 그보다도 명확한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좋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 왜냐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사랑인지 우정인지, 분노인지 실망인지 구분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우리는 감정을 구분하고 손에 쥐면서 그것을 느낄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알 수 없는 감정이라면 그런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가장 좋다. 낯선 감정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감정을 지각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후 일상생활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감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환경 적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런데도 우리에게 감정은 여전히 다루기 어려운 존재이다. 특히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관내분실」에서 볼 수 있는, 잊히고 싶다는 기분은 뭘까? 당신을 이해한다는 말 한마디만으로 무너지고 마는 마음의 벽은 뭘까? 그 마음의 벽으로부터 세상과 단절되는 것은 무척이나 슬픈 일이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세상과 단절되는 것은 더욱더 슬픈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관내분실」에서 볼 수 있었다.

나는 이 소설을 읽고 나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떠올랐다. 결혼과 임신, 출산 이후 경력이 단절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기혼 여성의 소외감이 함께 연상되었기 때문이다. 『채식주의자』에서는 주인공의 자기 파괴적인 부분이 도드라지면서 책을 읽는 내내 거부감이 느껴졌다.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책을 읽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기억에 깊게 남아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채식주의자』와 비교했을 때 『관내분실』은 큰 거부감이 들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면서도 계획에 없었던 임신에서 비롯하는 임신부의 우울증에 대해서도 볼 수 있었던 점이 매력적이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엄마’가 아니라 ‘김은하’가 이승에 남긴 흔적을 찾는 과정이었다. “엄마가 하나도 없어.”(253쪽)라는 대사가 기억에 남는다.

우리는 단절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길 원한다. 그런데 소설 안에서 김은하 씨는 자신을 기억할 수 없길 바란다고

했다. 그럼에도 지민은 끝내 김은하 씨를 만나서 “당신을 이해한다”라고 전한다. 긴 시간 동안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길 바랐으나 결국 죽고 난 이후에서야 이해받은 사람.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일찍 행복해지는 “김은하 씨”를 보고 싶다.

[우리는 모두 우주인이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읽으면서 나는 빛의 속도로 우주를 여행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과의 연대와 감정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특히나 이 책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드러내는 방식이 폭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좋았다. 이 소설집 안에서 사회적 약자는 어떤 소설에서는 우주인으로, 어떤 소설에서는 우주의 일부를 이름으로 가진 인물로 등장한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을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가장 마지막 소설인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에서 등장하는 가운데처럼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더라도 우주를 뚫고 삶을 개척해나가는 우주인이 되길 바랐기 때문이다. 각자의 우주 안에서 중심은 그 사람, 스스로다. 우리 모두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주를 자유로이 유영하는 우주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빛의 속도로 갈 수 없으면 어떻단 말인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있기만 하면 된다.

인간이 맞닥뜨린 모순점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넘쳐난 사유의 시간 때문에 '나의 정체성에 관한 생각'에 집중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나의 정체성은 주로 다니는 학교와 환경으로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 학생으로, 고등학교 학생으로 나는 스스로 당연하고도 평범하게 인식했고 또 인식되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평범한 고등학생으로서 마무리도 제대로 못한 듯 끝났고, 대학 입학식도 치르지 못한 채 나의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다. 계속해서 미뤄지는 등교는 스스로 어느 소속의 학생인지조차 망각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나'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 모호해지기도 하며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는 것만으로 명확해지기도 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지루하게만 흘러가던 시간 속에 '편의점 인간'이라는 도서를 통해 나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후루쿠라 게이코'는 17년째 편의점에서 다른 직업 없이 오직 편의점에서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편의점을 배경으로 한 독특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이유는 작가가 '무라타 사야카'라는 일본인이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활을 실제로 해 보았던 자신의 과거가 배경으로 구성했음을 알 수 있다. 주인공인 게이코는 여러 가지로 논점의 대상이 될만한 캐릭터이다. 그녀는 편의점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으며 결혼이나 연애 등을 하려 하지 않는다. 또한, 편의점에서의 일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취미 생활도 즐기지 않는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회인의 모습에는 전혀 부합하지는 않는다. 나는 후루쿠라 게이코의 특이함을 통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떠올려 보았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100명의 학생들에게 질문한다고 해도 내가 이 학교에 이 학과를 진학하게 된 이유에는 이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과가 나중에 취업이 잘 되고 유명한 과이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누군가에게 "왜 이런 직업을 희망하는가?"는 연령층에 따라 다양한 대답을 내놓을 것이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 물어본다면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이 많고 하면서 즐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라고 대답할 터이고, 대학생이나 이미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 질문했을 때는 "제가 이 분야를 전공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이 분야가 돈을 잘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직업은 자기 계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많이 상실한 듯 하다. 그저 생계를 유지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한 돈벌이를 돕는 행위로 인식되는 경우가 더 많아진 모양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인공 후루쿠라 게이코가 과연 작품 내에서 비난받아야 하는 대상인지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작품 속에서 게이코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가지며 서른여섯 살의 나이에 아르바이트만 해서는 되냐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게이코는 그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고 자립하고 있었으며, 자신 나름대로 삶을 잘 영위하고 있다. 그저 편의점 아르바이트 이외에 어떤 일도 하지 않아 가족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뿐이다. '직업'의 의미를 너무 협소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미치자, 직업을 갖는 이유가 돈, 명예, 자아실현, 비전 등으로 다양할 수 있듯이 직업이라는 것이 꼭 어

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다. 후루쿠라는 편의점 직원으로서 공손한 말투와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 또 다음 날의 출근을 위해 컨디션을 조절하는 게이코의 모습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 작품의 배경인 일본에도 아르바이트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프리터’라는 문화가 존재할 정도로 어느 사회에서는 이미 아르바이트가 일종의 직업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물론 자신의 직업이 자신의 적성과 비전과도 부합한다면 더욱 이상적이겠지만 이미 직업이라는 것이 돈벌이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면 사람이 어떤 일을 통해 돈을 버는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모습일 것이다.

‘편의점 인간’을 읽으면서 사람의 일반성이라는 것에 대해 가장 많은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다.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임을 원하는 것일까?

주인공 후루쿠라 게이코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생각해보자. 그녀는 남들과 다르게 정규직 직업을 갖지 않았고, 애인을 만들지도 않는다. 단지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이유로 그녀는 주목받고 등장인물 ‘시라하’같은 사람에게 질타를 받기도 한다. 나는 후루쿠라 게이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알기 위해 나의 가족이나 가장 친한 친구가 게이코와 같은 성향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았다. 이러한 가정을 하고 보니 게이코를 단순히 객체로 바라볼 때와 내 근처의 사람으로 바라볼 때 그 대상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다. 이는 두 상황의 차이점이 객체가 주변인인가의 여부라고 생각이 들었다.

이 책과 관련하여 학우들과 나누었던 ‘후루쿠라는 변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에서도 ‘변해야 한다’는 입장의 근거가 바로 후루쿠라의 주변인들이 곤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님의 돌봄을 받고 자라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님을 다시 봉양해야 하듯 주인공에게도 그녀의 부모를 모셔야 할 의무도 있을 것이다. 주인공의 부모는 매우 일반적인 삶의 방식으로 후루쿠라를 낳고 키웠기 때문에 자신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그녀가 자라길 원했을 것이고 그녀의 특이한 성격이라는 일종의 돌연변이와 같은 성격에 그녀의 부모가 이질감을 느끼고, 다시 그녀가 평범하게 돌아오기를 바라게 할 것이다. 마치 예술가 집안에서 예술가인 자식이 태어나고 운동 선수 집안에서 운동 선수인 자식이 나오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또, 사람들은 어떤 사안을 적용시킴에 있어서 모르는 사람과 가족같이 친밀한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난다. 어렸을 때 K-POP Star와 같은 많은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우승자들을 보며 자신도 저런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고 우승자를 동경하지만 자신의 가족 중에 가수 또는 댄서가 되고 싶다고 하면 말리기 일쑤이다. 그 우승자 가족의 이야기도 대부분 비슷하다. 어느 순간부터 가수가 되고 싶었으나 집에서는 심하게 반대했고 결국 본인의 끝없는 노력 끝에 우승을 거머쥐며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이 많은 우승자들의 레퍼토리이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후루쿠라 게이코가 작품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충고나 조언을 듣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녀가 조언자들의 주변 사람들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사람이 사회적이다 또는 평범하다’라는 말을 숙고하며 이 사회에 모순점들을 여러 가지 떠올렸다. 사람은 사회성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이어야 한다면 그 ‘사회’가 도대체 무엇인지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한다. 사회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군집을 이루는 것이다. 그 많은 사람이 모두가 똑같은 수는 없듯이 사람 개인의 다양한 개성이 융합되며 사회는 변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인공 후루쿠라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사람이 모여서 사회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회에 사람이 들어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새로운 개성의 개체가 태어날 때마다 변모해야 할 사회는 어느새 굳어버린 조형틀처럼 모양이 고정되었고 사람들은 그 조형틀에 맞게 자신의 모양을 변형시켜서라도 사회인이라는 신분을 얻으려 한다. 우리 사회는 항상 창의적인 것을 요구한다는 것 역

시 아이러니한 부분 중 하나이다. 남들과는 같은 모습으로 자라서는 특색이 없으며 남들과는 다르고 특별한 아이디어를 항상 추구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왜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연애 하지 않나요?” 혹은 “왜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정규 직장을 갖지 않나요?”라고 물어본다. 사람의 사고방식이 그 사람의 언행과 행동에 묻어 나오듯 아이디어가 창의적이고 독특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 또한 남들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같은 교육과 같은 삶의 방식 안에 사람들을 가두며 생각만은 남들과 다르게 하기를 원한다. 일례로 당대 최고의 천재로 불리는 에디슨과 아인슈타인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는 다르게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같은 ‘사회 기관’ 속에서 버림받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방식의 사고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장하여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천재가 되었다. 물론 모든 이들에게서 천재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사회는 추구하는 방향과 현재 나아가는 방향이 완전히 상반된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주인공 ‘후루쿠라 게이코’와 같은 사회 부적응자들은 변화해야 하고 없어져야 하는 존재일까? 이는 어떤 사람의 관점에 따라 바라보느냐에 따라 첨예하게 달라질 것이다. 미셸 푸코의 서적 「감시와 처벌」을 보면 학교와 사회는 대중들을 일정한 지식과 문화 속에 가두어 행동 범위를 좁히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사회가 정녕 모든 사람이 연애를 해야하며 직장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주인공과 같은 부적응자들을 사회라는 틀 속에 억지로라도 밀어 넣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 한 명 한 명의 성격을 중심으로 본다면 그 대답은 반대일 것이다. 소설의 시대적 배경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편의점의 존재라는 현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그들에게 교화될 것을 강요할 명분은 전혀 없다. 누구든지 개인의 선택과 성격을 존중받고 자신의 개성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부르짖는 모토이다. 이렇게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적응자들이 변화해야 할 이유를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다.

사회가 자꾸 이런 부적응자들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은 잠재적 범죄성을 막으려는 이유도 있다. 최근 들어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같은 사회성이 없는 사람들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일본 정부도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버버리 코트를 입은 남자를 모두 ‘바바리맨’으로 의심해서는 안 되듯이 부적응자들을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변화를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들 모두를 적절히 존중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에 영원한 숙제일 것이다.

‘편의점 인간’을 읽으면서 작가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특이한 등장인물의 성격과 일상만은 아니라는 것을 단박에 느끼게 되었고, 후루쿠라 게이코와 어느 정도 비슷한 인물로 묘사되는 시라하의 “석기시대와 똑같아”라는 말은 나로하여금 우리 사회의 현 모습을 거시적으로 바라볼 의무를 느끼게 했다. 지금의 사회가 도래하기 전 미개했던 시기를 떠올려 보면 남성은 셀수록 여성은 풍만할수록, 즉 남녀 모두 번식에 유리한 조건의 이성을 추구하고 인간의 단편적인 부분만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는 더욱 복잡한 모습을 추구한다. 성격도 좋고 몸매도 너무 근육질이어도 마른 몸이어도 안되고 지능도 있고 사회성도 있어야 한다. 예전의 석기시대에 비해 더 양면적인 모습을 원하고 이 사회가 바라는 ‘정상(normal)’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아무래도 똑같은 호모 사피엔스인데 더 많은 조건을 요구하기에 예전보다 우리가 말하는 ‘평범’에서 멀어진 사람이 많아졌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생존 방식은 무엇일까. 사실 이 대답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나는 단순히 자신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오감의 면도날에서도 비슷한 조건의 여러 방식 중에서 가장 단순한 방법이 가장 합리

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의 사회는 지금의 세대가 미래의 기성세대가 되어 또 다른 지향점을 만들고 '정상'의 기준이 지금과 중첩되며 더 복잡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계속해서 바뀌어 가는 정상의 기준을 따라가기보다는 지금의 자신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모순적인 사회에서 바라는 능동적인 모습과 가장 절충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일 것이다.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잠깐의 호흡도 허락되지 않는 물속에 잠겨있는 기분

“ 릴리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 도시를 만들었다.”. 다들 유토피아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는가? 어떤 이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 또 다른 이는 모두가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답할 수 있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라는 챕터 속 릴리 다우드나의 유토피아는 ‘외적인 모습으로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다. 그녀는 왜 이런 유토피아를 꿈꾼 것일까?

이 소설의 시점은 데이지의 시점으로 전개된다. 릴리 다우드나의 유토피아인 마을에서 시초지라고 부르는 이타사로 순례를 보내는데 이 과정 속에서 누구는 시초지에 남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마을로 돌아온다. 이 과정에 대해 의문을 느낀 유일한 소녀, 데이지는 순례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마을의 비밀 서고로 가서 얼굴의 흉터로 많은 상처를 받은 릴리 다우드나가 자신의 딸인 올리브를 위해 마을을 만든 것을 알게 되고 시초지로 떠난 순례자가 왜 돌아오지 않는지에 대한 사정을 알게 된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모두 흉터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 흉터가 물리적으로 신체에 남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흉터를 가진 것은 흠이 아니다. 오히려 누구나 가지고 있기에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새에 남의 상처를 파고들어 곱게 만든다. 유명인인 차은우는 아이돌로 데뷔한 신인시절에 휴게소에서 무대의 상을 입은 자신을 보고 “뭘야. 연예인인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발언의 비난성은 낮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상처로 남은 말이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주위의 사람들, 혹은 완전한 타인을 아프게 만든다. 릴리 다우드나도 부주의한 사람들의 말들 속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이렇게 입은 상처가 릴리 다우드나를 배아조작 바이오 해커로 만들었을 것이다. 릴리 본인은 얼굴에 있는 큰 흉터로 인해 많은 무시를 받으며 살아왔다. 아마 이는 그녀의 가장 큰 콤플렉스였을 것이다. 그래서 배아조작을 해서 아름다운 외형을 가진, 병에 걸릴 위험이 없는 신체를 아이에게 선물해주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그녀가 받고 싶었던 축복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극심한 차별을 이끌어냈다. 아름다운 외형과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생기는 반면 몸에 작은 흉터만 있어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극도로 깔보며 업신여기는 차별이 만연한 시대를 출현시킨 것이다.

나는 이 결과로 인한 릴리와 올리브의 상반된 선택이 가장 흥미로웠다. 릴리는 시초지에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자신의 딸인 올리브가 똑같이 겪지 않았으면 해서 누구도 외적인 아름다움에 연연하지 않으며 항상 행복하기만 한 자신만의 유토피아인 ‘마을’을 만들었지만 릴리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시초지를 선택했다. 릴리는 올리브를 너무 사랑해서 마을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올리브는 마을에서 나와 시초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다. 이는 시초지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자신이 만든 유토피아로 떠난 릴리와 차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시초지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은 올리브, 두 인물간의 상반된 가치관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서 가

장 인상 깊었던 것 같다.

마을에서는 외형적인 요소로 인해 비난받는 일이 없었다. 아니 부정적인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타인의 비난과 멸시를 받아보지 않았다. 비로소 시초지로 순례를 떠나게 된 후부터 마을의 순례자들은 시초지에서 평생 들어보지 못한 조름을 당하고 차별받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마을에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행복'을 최우선순위로 삼는다. 나도 마찬가지로 가치들 중에 최고의 가치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가치를 추구하려고 노력해오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 소설을 읽고 오로지 행복이라는 가치와 감정만 존재하는 세상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고통과 분노, 슬픔과 사랑이 없는 오로지 행복만이 가득한 세계. 내가 만약 원래부터의 마을의 주민이라면 이에 대해 아무런 의문점과 별다른 감정을 갖지 않을 테지만, 내가 순례자의 입장이라면 마을을 떠나는 선택을 했을 것이다. 눈을 뜬 맹인처럼, 새로운 세계와 감정을 접한 이상 이전의 단조롭고 무채색인 그 곳으로 돌아가기 싫을 것 같기 때문이다. 물론 차별을 받는 과정 속에서 많이 슬프고 외롭고 화가 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부정적인 감정만을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니다. 외롭고 배고플 때 나에게 손 내밀어 준 누군가에게 느끼는 고마운 감정. 보답하고 싶은 감정, 그리고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감각들을 마을에서는 느낄 수 없다. 어쩌면 이 감정들은 새롭게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모두 동일하게 가지는 행복의 가치에서 벗어나 나만의 행복 기준을 새로 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아마 마을에 돌아오지 않은 순례자들은 이런 생각들로 인해 시초지를 선택했을 것이다.

아마 릴리 다우드나도 올리브의 선택을 존중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마을의 순례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이다. 올리브가 시초지로 떠나기 전까지는 마을 사람들은 시초지의 존재조차도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딸이 스스로 시초지를 향해 떠나고 그 곳에서의 삶을 선택한 모습으로 보고 릴리 다우드나는 모두를 마을에 가두지 말기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순례라는 제도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 글 속에서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 배경이 있다. 바로 '마을'이다. 비난과 고통, 굶주림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은 책에서만 배우고 오로지 행복이라는 감정만 느끼는 곳이라는 설명을 읽고 너무 소름이 끼쳤다. 모두 행복만 느낀다고 하면 마을 주민들의 행복의 기준이 동일한 것이다. 즉 모두가 똑같은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면 끔찍하겠다.'라는 상상으로 이어졌다. 세상이 한쪽으로 쏠려있으면 다들 똑같은 가치관을 가질 것이니 비난을 받아도 너무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찔해진다. 그럼 그 비난 받는 사람은 그 세계에서 살 수 있을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내가 비주류인 행동을 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난을 받게 된다면 나는 삶을 지속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런 세계면 우리는 발전을 할 수 없지 않을까? 예를 들어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만 있다면 모든 것은 정체되어 있을 것이다. 새 자원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현재에 삶에 만족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휴식을 취할 장소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체되어 있거나 쉬고 있는 사람에 대한 멸시가 만연한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즉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마을과 같은 세계에는 예외를 위한 방도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주류가 99%인 세상에서 1%인 비주류가 발생했을 때, 비주류인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무게는 엄청 커질 것이다. 그럼 이

들에게는 선택지가 딱 2개 밖에 없다. 이 집단을 떠나거나 역지로 틀에 맞춰 살거나. 누구도 인생에 2가지의 선택지만 갖는 사람은 없다. 책에서는 데이지와 올리브가 이 경우에 속하는데 이 둘은 모두 시초지로 떠나는 것을 선택했다.

이 둘의 모습을 보고 나는 비주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잘 휘둘리는 성격이다. 평소 스스로가 남의 주장과 생각에 동조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왔는데 나의 이러한 행동이 책속의 올리브와 데이지 같은 사람들에게 비난이 가해질 때 암묵적으로 방관하고 동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들었다. 현실 세계는 책 속의 마을과 같이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지만 비주류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물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많이 존중해 주지만 조금만 선을 벗어날 경우, 생각보다 과할 경우에는 우리는 주류라는 이름으로 비주류를 탄압하고 비난한다. 이러한 태도 속에서 내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방관뿐이었다. 방관은 암묵적인 동의와 같다고 생각한다. 나도 똑같이 주류라는 탈을 쓰고 비주류들을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 생각이 전부다.’. 이는 나의 좌우명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이와 배반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에서 시작된 생각을 통해 지금까지의 나의 삶과 행동들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비주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겠다는 다짐이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부분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할 것이다.

어쩌면 현실은 ‘마을’과 많이 다르지 않고, 우리는 수많은 데이지와 올리브를 떠나보냈을지도 모른다. 아마 나만의 힘으로 세상 속 수많은 비주류들을 이해하고 돕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나부터 내 주위에 있는 비주류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위로해준다면 그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이유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나는 어떤 인간인가

코로나로 기대했던 복학 생활도, 고대하던 실습도 여의치 않아 집에서 사이버로 학습을 하다가 간호학과의 실습 쉬는 주를 맞이하게 됐다. 전처럼 밖에 나가 신나게 놀진 못하니, 집에서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학교 공지사항에 독후감 대회를 발견했다. 평소에 독서를 좋아하지만 학업에 후순위로 밀려 안 그래도 독서에 갈증이 있던 찰나, 도서 목록을 보다가 ‘편의점 인간’이라는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다. 전에 편의점에서 약 1년 반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왔기도 했었고, 강렬한 제목에 이끌려 검색을 해보니 예전부터 좋아하던 일본 소설이었다. 운명적인 만남이라 생각하고 바로 집 근처 서점에 가서 책을 구매해 읽기 시작했다. ‘정상’이 아닌 주인공이 담담하게 풀어내는 이야기에 나는 금방 빨려 들어갈 수 있었다.

『편의점인간』은 일본 문학계 권위 있는 문학상이라 꼽히는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작품이며, 작가 ‘무라타 사야카’는 실제로 최근까지도 오랜 기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글을 썼다고 알려져 더욱 이목을 끌었다. 작가 무라타 사야카는 ‘크레이지 사야카’라는 별명처럼 기존에 없었던 색다르고 묘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또한 “일반적인 세상 이야기에 묘한 것을 집어넣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편의점인간 또한 글을 읽는 내내 묘한 분위기에 휩싸였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후루쿠라 게이코’는 취직도, 연애도 한번 못해보고 18년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인물이다. 그녀가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한 일화로 초등학생 때 남자 아이 두 명이 싸우고 있는데, 누군가 말려달라는 외침에 게이코는 날뛰는 아이에게 달려가 그 아이의 머리를 삼으로 후려치며, “말리라고해서, 가장 빠를 것 같은 방법으로 말렸어요.”라고 태연하게 말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다.

이처럼 누군가 일일이 가르쳐주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해가는 어느 준거 틀을 게이코는 습득하지 못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게이코는 알 수 없어, 그 때 그 때 가족들의 도움으로 ‘정상인’인 척 살아가던 중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 일정한 루틴 안에서 움직이는 편의점 업무에 본인이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만족감을 느꼈지만 더 이상 편의점을 벗어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완벽한 ‘편의점인간’이 돼버린다.

이에 더불어, 서른이 넘는 나이까지 아르바이트만 하는 게이코를 주변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더 이상 ‘정상인’으로 살 수 없게 된다. 이에 게이코는 ‘덜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편의점에서 만난 ‘시라하’라는 괴짜같은 인물과 계약 아닌 계약을 맺고 동거를 하게 되나, 결국 편의점인간으로 남기로 결정하며 이야기가 끝이 난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주인공 게이코를 조금은 극단적인 인물로 설정하였지만, 독자들로 하여금 많은 공감을 일으켰다. 많은 독자들이 게이코를 공감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도 게이코와 다를 바 없는, 정상의 범주에 속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나는 학창시절 철학에 관심이 많았기에 철학과에 입학하기를 줄곧 희망했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주위에서 ‘철학과 가서 굶어죽으려고? 뭐 해먹고 사려고?’ 라는 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다 결국 입시의 벽에서 취업이 잘되는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런 나의 선택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주인공과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내 마음과 생각을 쫓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한, 현실에 안주할 수 있는 선택을 한 것이 사회가 암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보통의 사람이 되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읽고 정상과 비정상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청소년기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한다.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또 취업을 하고 나면 결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결혼을 하면 애를 갖기 위해 노력한다. “왜 결혼을 안 해?”, “왜 애를 안 낳아?” 우리나라에서 30대만 넘어가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들이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왜 꼭 결혼을 해야 해?” “왜 꼭 아이를 낳아야 해?” 라고 반문한다면 말문이 턱 막힌다.

왜 우리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준거 틀 안에서 살아가려고 아등바등 노력할까? 또, 왜 우리는 그런 준거 틀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였는가? 정상은 무엇이고, 비정상은 또 무엇인가? 정상의 범주에 들어가려는 노력은 의미 있는 노력일까? 정상의 범주는 ‘나 이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마음의 안주를 얻기 위해 만들어낸 틀은 아닐까? 하는 수많은 물음표들이 내 머리에 꽂혔다.

그러다 끝내 내가 도달하게 된 결론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려는 판단적 사고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물론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지 않고, 사회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은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든 면이 사회가 말하는 정상에 부합하는 완벽한 ‘정상인’인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정상’도 ‘비정상’도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도 평소 생각이 많은 편이어서 그런지, 책 속에서 풀어진 독백 부분에 공감이 되는 구절이 많았다. 특히 ‘정상 세계는 대단히 강제적이라서 이물질은 조용히 삭제된다. 정통을 따르지 않는 인간은 처리된다. 그래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고치지 않으면 정상인 사람들에게 삭제된다.’는 구절이 가장 인상 깊었다. 사회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물질’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도 그렇고, 대단히 강제적인 정상 세계라는 표현에도 공감이 갔다.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며 포용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는 세계, 지금 현실 세계가 너무나도 떠올라 슬퍼졌다.

나는 어떤 인간일까? 약 23년간 살면서 만난 가족들, 친구들, 아르바이트 동료들 등 여러

사람들의 말투와 행동이 눈송이처럼 데굴데굴 모여 나라는 눈덩이가 됐다. 23년간 내가 거처 온 모든 것들이 가랑비처럼 살금살금 다가와 나를 흠뻑 적셨다. 이런 나는 어떤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떠한 특정 단어로 규정지을 수 없는 인간이며, 특징짓는다는 것 또한 어떠한 판단적 사고가 적용된 것이 아닐까. 나는 그냥 나 그 자체이며, 계속 변화한다. 지금 이 독후감을 작성하고 있는 1분 1초의 순간에도 흘러가는 강물처럼 나는 계속 흘러간다.

“페스트란 무엇인가요? 인생인 거죠, 바로 그거죠, 뭐.”

“그래요 카스텔.” 그가 말했다. “믿어지지 않지만 페스트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위의 소설 속 한 대사로 이 책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페스트’는 제목 그대로 전염병 페스트의 발현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 페스트의 종식으로 이야기를 끝마친다. 페스트란 페스트균의 감염으로 일어나는 급성 감염병이다. 페스트는 중세시대 어마어마한 피해를 안겨주었다. 병의 고통은 끔찍했으며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 페스트를 안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전염병 이야기로 이 책을 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페스트’에 대해 자세히 몰랐던 나는 책을 읽는 내내 다른 느낌을 받았다. 나는 오늘 페스트에서 받은 느낌을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처음, 페스트는 하나의 ‘변화’라고 느껴졌다. 페스트가 발생하기 전, 많은 사람은 오랑이라는 도시에서 평범하게 지냈다. 의사는 의사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수위는 수위대로. 그러던 중, 피를 토하며 죽은 쥐의 사체들이 증가했다.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도시 오랑은 폐쇄되었다. 마을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었다. 또한, 랑베르 기자같이 다른 도시에서 잠깐 오랑이라는 도시를 들렀다가 갇힌 사람도 있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혼란스러웠다.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들이 갑자기 모두 중요한 것들처럼 보였다.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다. 이는 모두 갑작스럽게 찾아온 변화 때문이다. 이 변화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육체적, 신체적으로 괴로움을 주는 변화였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변화에 적응해갔다. 즉, 페스트의 질서 속에 들어간 것이다. 책에서 시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제 끝날 때도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이 다였다.

변화가 낳은 이 변화가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생각해보면 살기 위해서는 페스트의 질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순응밖에는 답이 없다. 그러나 객관적인 면에서는 극복하고 다시 원래의 삶을 되찾아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의 상황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1월 갑자기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돈다는 기사를 접했다. 그리고 춘절 이후,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이 우한 폐렴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이 병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정해졌으며, 전염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몇 주 후, 폐렴이 대규모로 확산하였고 나라가 발각 뒤집혔다.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마스크와 음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불안 속에서 살아갔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사실상 지금이 더 위험하고 조심해야 할 시기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이 변화 또한 좋은 것일지, 나

뻘 것일지는 선불리 판단하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페스트는 사람들에게 매우 큰 변화였다는 것이다.

중간쯤, 나는 페스트에서 ‘이별’과 ‘사랑’, ‘인정’과 ‘단합’을 느꼈다. 주인공인 의사 리외는 직업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 환자를 고쳐주고 냉철하게 판단했다. 다른 마을에서 오랑으로 왔다가 갇힌 기자 랑베르는 이런 리외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자신은 아내를 두고 이 도시에 갇혀 안절부절못하는데, 묵묵히 일만 하는 리외가 사랑과 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리외에게 괜히 비아냥거린다. 하지만 이때, 보건대 타루의 충고가 랑베르 기자에게 쿵 하는 느낌을 준다. 바로 리외에게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그 아내는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니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충고였다. 랑베르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많은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다들 사랑하는 사람과 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랑베르는 자신도 다른 마을에서 잠깐 온 사람이지만 현재는 여기 시민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자신이 도와서 빨리 이 상황이 종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바로 보건대에 들어간다. 보건대는 페스트에 걸린 사람들을 돕는 봉사단이며 타루가 여기서 봉사를 하고 있다. 마침내 리외, 랑베르, 타루 등 모두 페스트를 물리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비록, 처음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서로를 의심하거나 통명스럽게 대하여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힘써나갔다. 그들은 모두 애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마음을 모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합쳐지고 열심히 노력하니 놀랍게도 갑자기 페스트가 수그러지기 시작했다. 이상할 정도로 갑자기였다. 우리는 이를 보고 기적이라고 논할 수 있을 것 같다. 다 함께 만들어낸 ‘기적’.

이런 이별, 사랑, 인정, 단합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예전부터 애국심을 중요시하고 국민은 합심이 잘되는 나라였다. 이번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다 같이 노력했고 바이러스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행동들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제는 종잡을 수 없는 시기가 되어버렸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로 합쳐졌다면 1달 전에 이미 코로나 19 바이러스 종식을 외쳤을지도 모른다. 1940년대 나올 책이 80년 후의 미래를 예언해주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이 책이 주는 충고를 흘려넘긴 것이다. 정말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기적을 볼 수 있다. 서로가 위기의 상황에 부닥쳤을 때, 조금씩 힘을 합친다면 그 무엇도 무서울 게 없다. 그리고 일이 해결된 후, 그 행복감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하지만 도와주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일을 망치거나 단합이 무너질 때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사랑, 인정이 없고 단합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한 사람은 굳이 자신이 필요가 없고 아마도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곧 다시 구성원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임할 것이고 일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마지막에 페스트는 나에게 ‘인생’으로 느껴졌다. 책이 끝날 무렵, 페스트가 사라지고 마을은 다시 평화가 찾아온다. 사람들은 페스트가 사라졌다고 축제 분위기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의사 리외와 노인의 대화에서는 이상한 것을 눈치챌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페스트.우리가 페스트를 이겼어’라며 난리를 치지. 별것 아닌 일로 훈장이라도 달라고 할 거고. 근데 페스트가 대체 뭘 의미할까? 그것이 인생이야. 그뿐이지”

노인이 의사 리외에게 한 말이다. 나는 이 문구가 책을 다 읽은 뒤에도 한참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하나의 전염병이 인생이라는 것일까? 책을 읽은 다음 날 아침까지도 고민했다. 그리고 그 정답을 알아내었다. 전염병이란 그런 것이다. 갑자기 어디선가 아무도 모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은 먼 것 같았지만 점점 내 주변으로 다가오고 그게 나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것이다. 상황은 좋아졌다 나빠지기를 반복한다. 완전히 사라졌다 할지라도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 다시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도 그 영향이 미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모르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은 예상할 수 없다. 어쩌다 보니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바깥세상에 태어났다. 그리고 보호자 밑에서 성장해나간다. 중간중간에는 갑자기 찾아온 시련과 기쁨도 있었을 것이다. 예방주사를 맞기 싫은데 맞았을 것이다. 공부하기 싫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여행 가자고 하셔서 즐겁게 놀다 온 적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고 깨달았다. 앞으로의 미래도 과거와 같으리라는 것을. 나중에 올 시련이 미리 올지, 시련이 오지 않고 행복만 가득할지, 행복이 살짝 늦게 도착할지 모르리라는 것을.

한순간의 고민과 선택으로 인생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현재에 감사하고 혹시나 시련이 온다면 자연스럽게 대처하면 된다. 물론 현실에 안주해서 변하지 않으려고 해서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없다. 결국 행복도 어느 순간 사라질 것이다. 이는 페스트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항상 유연해야 한다. 시련이 오면 곧 갈 시련이라고. 행복이 오면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는 행복이니 그 행복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고.

페스트가 과연 전염병에만 국한된 것일까? 아니다. 이는 우리에게 변화이고 이별, 사랑, 애정, 인정이며 인생과도 같은 무언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내야 할지 보여주는 것이다. 소셜 속 주요인물들은 평범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페스트와 묵묵히 싸운다. 물론 몇몇 희생과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페스트지만, 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준다. 약간의 변화가 오더라도 함께 하면 뭐든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다시 평범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당당한 불량품

“탁자 위에 케이크를 반으로 자를 때 쓴 작은 칼이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울음을 그치게만 하는 거라면 아주 간단한데, 힘들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턴가 명절에 큰집에 가는 것이 싫었다. 애초에 내 또래가 많은 외갓집보다 재미가 없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가기 싫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은 확실히 최근의 일이었다. 특별한 사건이 이유가 된 것은 아니었다. 그저 어른이 많으므로. 그리고 그 어른들이 소위 말하는 끈대들이기 때문에. 24살에 배우를 하겠다며 대학조차 가지 않고 발버둥 치고 있는 나는 그들에게 좋은 먹잇감이었을 것이다. 배우를 한다는 놈이 텔레비전에 나오기는커녕 뭘 하고 다니는지조차 알 수 없으니 더더욱.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서울대를 가겠다고 조카가 소위 탄따라를 하겠다고 공부를 내팽개쳤을 때, 그들은 다짐했는지도 모른다. 고쳐줘야 한다고. 우리 조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그리고 자위했을 것이다. 이것은 끈대의 쓸데없는 오지랖이 아니라 사랑하는 조카를 위한 진심 어린 충고라고. 그렇게 그들의 진심이 담긴 충고는 언제부턴가 화살이 되어 날아와 박히기 시작했고, 어느새 나는 너털너털해져 더는 그들의 화살을 맞을 자신이 없게 되었다.

너도 어느새 20대 중반이야.

언제까지 철없이 굴 거냐.

하고 싶은 것도 좋지만, 미래를 생각해야지.

대한민국에서 대학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조금 실질적인 꿈을 꿀 수는 없니?

뻔하디뻔한 질문과 충고들. 결국, 그들이 하는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다. 남들처럼 살아라. 남들처럼 대학가고 남들처럼 취업해서 남들처럼 결혼하는 삶. 마치 공식 같다. 대학 - 취업 - 결혼으로 이어지는 3단계 공식. 이 중 하나라도 틀어지면 또다시 무수한 충고와 조언을 가장한 화살들이 쏟아질 것이다. 그들은 대체 무슨 권리로 무자비한 화살 세례를 퍼붓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언제까지 그것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버텨야 하는가, 순응해야 하는가.

“정상세계는 대단히 강제적이어서 이물질은 조용히 삭제된다. ... 그래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고치지 않으면 정상인 사람들에게서 삭제된다.”

이 책은 이러한 나의 상황에 신선한 환기가 되어준 작품이었다. 꽤 극단적인 예를 들고는

있지만, 결국 주인공인 ‘후루쿠라’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다. 어렸을 때부터 이상했던 그녀는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본인이 남들과 조금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로 인해 슬퍼하는 부모님을 위해 남들 같은 ‘보통 사람’을 흉내 내며 살아가기 시작한다. 잘 짜인 톱니바퀴 같은 세계에서 혼자 툭 튀어나온 불량품이 어떻게든 다른 톱니바퀴를 흉내 내며 겨우겨우 세계를 돌리는 삶. 그것이 그녀의 인생이었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 일하게 된 편의점에서, 그녀는 자신이 비로소 세계의 부품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모두가 ‘점원’이라는 균일한 생물로 탈바꿈해 누구 하나 모난 곳 없이 매끄럽게 돌아가는 편의점의 삶. 세계의 정상적인 부품으로서의 그녀가 드디어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그녀는 다시 불량품으로서의 삶에 직면하기 시작한다.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야 하는 취업과 결혼이라는 또 다른 ‘보통 사람’의 과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30이 넘도록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결혼조차 하지 않고 있는 그녀는 여전히 불량품이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 가족의 걱정, 그녀는 이해할 순 없었지만 ‘보통 사람’이 되기 위해 다시금 노력한다. 이해관계가 맞는 남자를 아무 감정 없는 동거인으로서 집에 들이고, 취업을 해보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그만둔다. 하지만 그녀 세상의 전부였던 편의점이 사라지는 순간, 그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편의점을 위해 18년을 살아오던 톱니바퀴는 이제 그곳이 아니거늘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이다. 편의점에서는 매우 훌륭한 톱니바퀴였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순간 맞는 곳을 찾을 수 없는 불량품에 불과한 부품. 그것이 그녀였다. 결국, 그녀는 다시, 그녀의 세상을 찾아 돌아가게 된다. 나 역시 내가 맞는 세상을 찾아 끊임없이 배회하는 톱니바퀴에 불과하다. 아니,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렇다. 자신이 맞는 세상을 찾아 배회하는 톱니바퀴. 하지만 대다수 톱니바퀴는 자신에 맞는 세상을 찾기보다 자신을 세상에 맞추곤 한다. 나를 조금 짊고 다듬을지라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세상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그리고는 다른 톱니바퀴를 보며 충고하기 시작한다. 너도 어서 들어오라고. 언제까지 맞는 곳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있을 거냐고. 그리고 나는, 아직 맞는 곳을 찾지 못한 톱니바퀴다.

“이상한 사람한테는 흠발로 쳐들어와 그 원인을 규명할 권리가 있다고 다들 생각한다.”

정상과 비정상. 불량품과 톱니바퀴. ‘보통 사람’과 이상한 사람. 이 작품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작품이다. 세상엔 70억 명의 사람이 있고 70억 개의 인생이 있다. 모두가 각자에게 맞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간다. 하지만 대다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획일화된 한가지 인생의 틀에 맞추기를 원하는 것이 현대 사회이다. 일정한 나이에 맞게 정해진 과제들, 대학, 취업, 결혼, 출산, 육아. 모든 사람의 인생의 속도가 다름에도 일정 나이가 넘어서면 이러한 과제들을 강요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불량품이 되지 않기 위해, 비정상이 되지 않기 위해 그러한 기준에 우리를 맞추고 ‘보통 사람’을 연기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서로 전염시키며 ‘보통 사람’인 척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는 그것을 어른의 지혜, 인생 선배의 조언, 진심 어린 충고 등으로 열심히 포장하곤 한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답일까? 아니 애초에 사람의 인생이란 분야에 정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것일까? 정상이란 무엇이고 비정상이란 무엇일까. 분명 어렵지 않은 질문이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하다.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어떤 인생을 주위 사람들에게 강요했는가. 인간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획일화된

삶을 강요하는 현대 사회의 모순 속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고민한다. 나를 깎고 닦아서 세상에 들어맞는 톱니바퀴가 될 것인가. 종국엔 불량품에 불과할지라도 언젠가 나타날지 모를 내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남을 것인가.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대들 역시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그대들의 인생은 어땠으며 그것이 진정 원하는 인생이었는지. 자신 있게 답하지 못했다면, 그대들 역시 어쩌면 아직 ‘보통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보통 사람’이 아닌 나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일지도 모른다.

“나는 문득, 아까 나온 편의점의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 유리창 속의 내가 비로소 의미 있는 생물로 여겨졌다. ... 내 세포 전체가 유리창 저편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에 호응하여 피부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나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더 어둡기에, 더 밝을 수 있다는 것을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다. 멀리서 구경만 할 때는 좋은 일만 가득하고, 가까이서 바라보면 좋은 일들 속에 감춰진 이면이 보이게 된다.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아픈 현실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추악한 현실을 가리기 위해서 대부분 현실을 외면하고는 한다. 슬프고 힘든 사람은 앞으로 괜찮을 거야 라며 기약 없지만 애써 자신을 위로하고, 속은 비었지만 겉은 화려한 사람들이 생겼으며, 다름을 두려워하며 그 사실을 숨기는 사람들이 생겼다. 왜 그들은 잠시 슬프고 힘들어도 되는데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칠까, 왜 그들은 자신의 본모습이 아닌 남이 보는 모습에 열과 성을 다 할까, 왜 그들은 틀림이 아닌 다름을 두려워할까. 왜 그들은 현실을 숨기기 위해 급급할까. 이런 생각들을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는 탐구했고, 그런 모습들을 자신만의 글로 새겼다.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는 자신의 인생을 '저주'로 정의한다. 그는 자신의 시집인 '악의 꽃'을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담아 놓은 사전이라 칭하며 자신이 보는 세상을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그는 상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는 상징을 영혼이 초자연적인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아무리 평범한 풍경이나 사물일지라도 그 속에 드러난 생명의 깊이라고 말한다. 보들레르는 평범한 풍경이나 사물 속에서 교감을 통해 상징을 찾으며, 그 상징들을 모아 시집으로 편찬하여 우리에게 보여준다. 『파리의 우울』은 항상 빛이 찬란하며 사치스러운 것만 같은 파리의 모습을 담았다. 빛이 진하면 그림자도 진해지듯이 그는 여자, 노인, 광대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관심을 주고, 자신을 그들과 같은 처지로 여긴다. 그들과 같은 시선에서 현실적으로 세계를 바라본다. 파리의 우울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느낄 수 있는 풍경과 사물, 그리고 감정을 담은 책으로, 그가 말한 우울은 현실적이어서 좌절할 수밖에 없기에 생기는 어두운 세계였다.

「어느 희롱꾼」에서 '이 기막힌 천치에 대해 갑자기 말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혔다. 이 친구야말로 프랑스의 정신을 모조리 한 몸에 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기에.'와 같이 그는 대중에 대한 경멸과 혐오를 보여준다. 대중은 동물처럼 매우 잘 길들여져 있기에 편을 지어 무리를 나누고, 자신과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고 배척한다. 눈앞의 반짝이는 것만을 영위하고 누군가와 늘 자신을 비교해 책망한다. 그는 대중을 소수자나 약자를 무시하며 대중이 있기에 차별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의 대중에 대한 혐오는 이 작품 외에도 「마음을 털어놓고 XXXIV」에서 볼 수 있다.

「쾌짙한 유리 장수」에서 '운명을 보기 위해 혹은 알기 위해, 아니 운명을 시험하기 위해서...아니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변덕에 의해, 무료함 때문에./방금 내가 지적했듯이, 가장 나태하고 가장 몽상적인 사람들에게서다/그러나 일 초의 순간이나마 무한한 쾌락을 얻는 자에게 영원한 형벌쯤 대수라?'와 「가짜 화폐」에서 그는 가짜 화폐를 거지에게 준 부자 친구의 행동에 경악하면서도 그런 악덕이 거지에게는 가짜 화폐가 인간이 신에게 받은 선물과 같을 수도 있다고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충독적이고 쾌락만을 영위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런 행동을 하며 그 행동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와 같은 부조리한 사실조차 현실이라는 점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잔인한 현실은 숨기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이런 식으로 너무 안쓰러운 현실조차 자기 나름대로의 상징을 찾아 표현한다.

앞서 말했듯이 그는 사회적 소수자와 자신을 같은 처지로 인식한다. 하지만 꼭 우리가 보들레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본 허무함, 초라함, 빈약함과 같은 감정들을 잘 담아 기억에 남은 작품이 있다. 바로 「늪은 광대」이다. '수치심으로 인해 스스로 이 모든 화려함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듯한 광대가, 초라하고 등이 굽고 노쇠하여 인간 폐물이라고나 할 가엾은 그가 허름한 판잣집의 기둥에 기대어 앉아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그러나 그는 얼마나 깊고 잇을 수 없는 시선을 이들 군중과 불빛 위로 보내고 있었던가! 움직이는 군중과 불빛의 물결은 그의 험오스러운 궁핍 바로 몇 걸음 앞에서 벗어나 버렸다. 그 정경을 바라보는 나의 눈은 떨어지기를 거부하는 어쩔 수 없는 눈물로 앞이 가리는 것만 같았다.' 그는 늪은 광대를 자신에게 투영하여 자신의 불행을 넘어선 현대인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늪은 광대에서는 부유한 파리시민들이 만든 밝은 빛 속에 더욱 드리워지는 가난한 자들의 어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모두가 밝아 보이는 세상 속에 나 혼자만 어두운 것 같은 순간을 생각나게 한다. 이 작품에서 그는 늪은 광대를 향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광대를 모욕할까봐 두려웠다고 한다. 우리도 그렇다. 우리도 어둠 속에 빠진 자에게 쉽게 손을 건넬 수도, 쉽게 위로의 말을 할 수도 없다. 우리가 상대의 감정의 크기를 헤아리지 못하고 건넨 말과 행동이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뜨릴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런 그가 이런 작품들을 통해 자극적이고 우울만 남은 현실에 이길 방도가 없으니 그저 우울에 빠진 채로 현실에 순응하며 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는 이런 현실에 적극적으로 이겨내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자신의 신념 아래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울만 남은 현실을 버티고 이겨내는 방법임을 알려준다. 「취해라」는 그의 신념이 가장 잘 담긴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취해 있어야 한다. 모든 게 거기에 있다. 그것이 유일한 문제다. 당신의 어깨를 무너지게 하여 당신을 땅 쪽으로 꼬부라지게 하는 가증스러운 '시간'의 무게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 당신은 설 새 없이 취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때때로 궁궐의 계단 위에서, 도랑가의 초록색 풀 위에서, 혹은 당신 방의 음울한 고독 가운데서 당신이 깨어나게 되고, 취기가 감소되거나 사라져버리거든, 물어보아라. 바람이든, 물결이든, 별이든, 새든, 시계든, 지나가는 모든 것, 슬퍼하는 모든 것, 달려가는 모든 것, 노래하는 모든 것, 말하는 모든 것에게 지금 몇 시인가를. 그러면 바람도, 물결도, 새도, 시계도 당신에게 대답할 것이다. "이제 취할 시간이다! '시간'의 학대받는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취해라! 술이든, 시든, 덕이든 무엇이든, 당신 마음대로."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 「취해라」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유한적인 시간 속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순간은 몇 없다고. 그렇기에 우리는 조금 더 열정적으로,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오롯이 내 앞만을 향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꼭 앞만을 향해 달려 나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지쳐있을 때 잠시 쉬어가도 됨을, 어두운 순간이 진할수록 나의 밝은 순간 또한 진할테니. 그리고 보들레르의 시를 보면 거침 없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데, 표현을 선택하는데 노골적이며 거침이 없다. 하지만 그런 점이 거짓 같은 현실 속에 한 줌의 진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우리가 보기 싫어 외면했던 부분까지 전부 보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망가져 있다. 하지만 망가진 모습을 감춘 채로 살아간다. 남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일까봐 서로가 괜찮은 척하는 모습은 본인에게 와닿는 이질감을 주기에 더욱 망가져 버린다. 그저 조금만 자신의 망가짐을 드러내고 마주 보는 것만으로도 괜찮을 수가 있는데.

우리 모두는 '평강 공주'나 '바보 온달'이다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은 한국사람마다 모두 아는 이야기지만, 나는 수업시간에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옛날 고구려에 무섭게 생겼지만 행동은 어린애 같은 온달이 있었다. 당시 왕에게는 평강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평강은 울보였기 때문에 왕은 평강을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야 한다고 농담을 하곤 했다. 그러나 평강공주가 자라자 왕은 공주를 귀족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했다. 공주는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자 온달을 찾아가서 결혼했다. 공주는 온달과 결혼한 후 매일 온달에게 무예를 가르치면서, 온달이 사냥 대회에서 1등을 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왕이 온달과 평강을 왕궁으로 돌아오게 했다. 온달은 용감한 장군이 되었다. 하지만 온달은 적과의 전투에서 희생되었다, 신기하게도 공주가 가서 그에게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할 때까지 그의 관은 움직일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나는 평강 공주를 매우 존경했다. 만약 내가 평강공주라면 한번도 보지 못한 온달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평강 공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좋은 삶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바보로 보이는 온달과 결혼했다. 또한 온달에게 무예를 가르쳐서 대회 1등이 되도록 했다. 평강 공주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바보 온달의 얼굴은 무섭지만 마음씨는 매우 착하다. 심지어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 온달은 하룻밤 사이에 운명을 바꿨지만 그는 나쁜 사람이 되지는 않았다. 외모로는 사람의 속을 알 수 없다. 나는 온달이 착해서 평강 공주를 만나는 거라고 믿는다.

따뜻하고 격려가 되는 이야기지만 나쁜 사회현상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타인을 차별하는 것이다. 얼굴이 무섭게 생겼지만 행동이 어린아이 같아 주위 사람들에게 '바보 온달'이 되어 조롱을 받은 온달이 실제로 매우 착하고 효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주위사람들은 모두 무의식적으로 그의 착한 마음씨와 효도를 등한시했고, 그의 약점만을 무한히 확대시켰다. 만약 공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온달은 평생 다른 사람의 '바보 온달'이라는 비웃음 소리에 묵묵히 참아내며 지냈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오늘날에도 흔하다.

차별은 얼마나 끔찍할 수 있을까? 당신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이런 동창생이 있었어요? 보통 외모에 나쁜 성적까지 늘 과묵한 성격 별로 존재감이 없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지루할 때 항상 놀리는 대상이다. 이때 그는 난감하게도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마치 그의 존재가지도 잘못된 것 같다. 그도 남의 웃음 소리에 점점 더 어색해지고 침묵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차별할 때는 항상 많은 이상한 이유가 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어떤 때는 심지어 이유가 없다. 차별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현재 얼마나 많은 '바보 온달'이가 남의 비웃음 소리에 외로워지거나 괴팍하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평강 공주'나 '바보 온달'이 될 수 있다. '평강공주'가처럼 '온달'을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도와주고. 비웃는 것 대신에 도움을 주어라, 그러면 우리 모두는 진보할 것이다.

나는 그곳에 살고 싶다

처음 책의 제목을 봤을 때 이 책이 단순히 도시 또는 나라처럼 주거지역에 대한 것 만을 소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 책을 읽어보니 건축학적 요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개념과 관계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작가의 해석과 제안을 설명한다. 책의 내용은 내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지만 덕분에 전에 전혀 몰랐던 건축학과 건축물을 많이 알게 되고 건축과 생활 사이의 미(美)도 발견했다. 또 책의 내용 초반부터 작가는 내가 생각하는 건축이라는 것의 개념을 바꾸는데 성공한 것 같다. 건축이라는 말을 들으면 예술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공간적인 요소가 핵심이 되어 사람의 삶과 많은 관계를 가지는 사회적인 부분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책에서는 다양한 주제들로 나누어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나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혼자 길을 걸으면 차들이 빠르게 내 옆에서 지나가고 나뭇잎도 바람 때문에 흔들린다. 그럴때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은 것은 건축물 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서도 우리 주변의 건축물이 너무 정적이고 역동적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내가 평소에 하는 생각과 비슷한 개념이 많이 나와서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고 <응답하라 1988>처럼 정말 좋아해서 열 번도 넘게 다시 봤던 한국의 드라마나 예능이 사례로 나올 때는 작가가 설명하는 공간을 머리속으로 상상하면서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 유학을 와서 한국에서 3년째 살고 있는데 점차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어 공부를 하는 것에 흥미가 있고 한국의 문화를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주변의 중국 유학생들보다 더 잘 적응한 것 같다. 그런데 중국의 살던 곳과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비슷한 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많이 있어서 과연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계속 한국에서 살 것인지 또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많이 고민하고 있었고 그 고민에서 내가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던 것은 언어적 부분이다. 한국의 문화와 음식, 문화 그리고 교통시설 같은 것들에 매력을 받아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어디에서 사는지는 언어적인 부분이 매우 큰 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한국어 실력이 아주 발전해야만 졸업 후에도 한국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책은 나의 그런 생각을 조금 변화시켰다. 회사건물설계가 회사의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결정이 된다는 것, 학교의 구조가 아이들의 창의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등 공간과 인간행동을 연관해서 설명한 사례들은 건축적인 요소가 얼마나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려줬다. 특히 얼마전에 영문으로 읽어보려고 노력했던 cass R. Sunstein의 <Nudge>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개입의 개념이 떠올랐는데, 이 책에서는 그 '개입'이 건축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따라서 내가 사는 도시 혹은 공간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책을 읽으면서 계속 나는 어떤 곳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했다.

책을 모두 읽었을 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인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인간을 축성하는가?’ 인간과 건축물은 상상보다 훨씬 더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있겠다. 어디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더이상 언어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지냈던 3년을 생각해보면 이곳이 어떤 장소인지 생각했지만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장소인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다. 어떤 도시가 살기 좋은 곳인지, 어떤 장점, 단점이 있는 곳인지에 관계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먼저 스스로에게 해보고 싶다. 그 대답을 할 수 있을 때는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싶다.

삶의 무기가 되는 쓸모 있는 경제학을 읽고

다이어트 왜 자꾸 실패할까? 자아고갈 이론을 처음으로 발표한 미국의 한 교수는 자아고갈 이론에 대하여 4가지의 이유를 언급했다. 그 중의 한 가지는 다음과 같다. 자기통제력은 무한정 존재하지 않는 한정된 에너지 자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통제력을 자주 사용하면 이 자원은 고갈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기통제를 위한 에너지는 다시 보충될 수 있다. 다만 보충되는 속도는 고갈되는 속도보다 느리다. 그래서 종종 바닥을 드러내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자아고갈 이론을 처음으로 발표한 미국의 교수에 의하면 자아통제력을 높이고 극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하나의 방법 그것은 바로 자기통제 능력은 근육과 비슷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능력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야기는 나에겐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나는 자주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피자나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싶을 때가 있다. 나의 체중이 70킬로그램이 되고 나서부터 나는 자아고갈에서 나온 '자기통제력'을 단련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자기통제력의 능력이 높지 않아 통제력을 잃고 야식을 먹어서 살이 찌는 것을 후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나에게는 희망이 생겼다. 자기통제 능력은 근육과 비슷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능력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나도 언젠가 인내심을 길러 다이어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론으로 다른 일들도 자기통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자 다짐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나에게 알려주는 것은 미완성된 것들이 더욱 잊기 어렵다는 것이다. 완성된 일보다 미완성된 일 더 잊기 어렵다. 후회는 조용히 밤에 떠나고 고요한 밤에는 좋은 일이 별로 없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들으면 나쁜 일은 좋은 일 보다 더 잊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두 번째 이야기와 역사를 빗대어 보면 우리에게 미완성된 것은 선혈이 겪은 경험과 원한이다. 중국도 한국과 비슷한 역사인 위안부와 난징대학살 사건을 겪었다. 비록 우리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린 피해자를 대표해서 용서할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한은 양날의 칼이라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다치게 할 수도 있다. 나는 정부가 전부를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도움 없이는 미완성된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완성된 역사를 잊지 않으면서도 상대국가에 대한 혐오나 미움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다음의 물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왜 시험 전날에 공부가 제일 잘될까? 그 이유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 일을 하면 그 일의 효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책을 사는 것보다 책을 빌리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왜냐하면 빌려온 책은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빌려온 책은 읽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더 읽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만든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한정된 시간의 효율성 있게 일을 해결하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었다. 계획을 할 때는 시간을 세밀하게 나누고 더 자세한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잘살려면 배신하는 게 유리할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게임이론은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전제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이론이라고 한다. 협력은 일석이조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어떤 사회가 서로를 믿고 협동, 신뢰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에서는 신뢰를 유지하고 협동하는 것이 모두에게 가장 유리하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삼국지가 생각났다. 삼국의 조조는 의심스러운 사람은 쓰지 않고, 쓰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그는 이미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행동이 무엇인지 그 게임이론을 잘 사용했던 것 같다.

다섯 번째는 '호갱' 안 되는 법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경제학에는 '일물일가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품질이 동일한 제품이라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도 단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만약 하나의 제품에 두 가지 가격이 존재하고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비싼 제품을 살 소비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의 어렸을 때의 경험을 빗대어 보면 프랜차이즈 햄버거가게 KFC는 더 많은 사람들의 돈을 벌기 위해 우리에게 쿠폰을 주지만 쿠폰을 사용할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 인쇄하여 가져가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인쇄하는 시간을 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원가에 사고 나처럼 어리거나 돈 없는 사람들 만이 시간을 들여 쿠폰을 받았었다. 이렇게 KFC는 상품에 두 개의 가격을 형성하여 더 많은 사람을 만족시켰었다. 그래서 나는 호갱이 되지 않는 방법은 물건을 살 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이야기는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이다. 2016년 중국에서도 폰지 게임이 일어났다. 관련금액은 800억원이나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이유는 그들에게 공짜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 생각해 보면 터무니없는 말에 왜 넘어갔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이 책에서는 남을 믿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신뢰는 조절하는 요령을 키워 나가면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자기자신을 잘 헤아려야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2016년 중국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이 책의 예시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매우 일맥상통하여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조금 주관적인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면 가난할수록 사람들의 생존능력은 높아지지만 창의적 재능을 잃어버린다는 부분에서 책을 읽을 때 독자가 직접 생각하게 만드는 것 보다 저자의 의견대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많은 깨달음도 있었다. 살면서 도움이 되는 많은 지식들을 얻어 가게 된 것 같아서 뿌듯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 책을 추천해준 선생님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심리학과 경제학이 만나면

세상에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아 진로를 방해하기 때문에 멈춰서서 무슨 일인지 볼 수 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은 모두 우리의 인생에 있어 아름다운 경관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에게 늘 새로운 진리를 알려준다. 이런 도리는 우리가 기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호기심이 많은 나는 우연히 "삶의 무기가 되는 쓸모 있는 경제학"이 책을 읽었다. 내용은 일부교수가 실험을 하고 실험결과를 인용하여 각종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람들에게 도리를 알려주는 내용을 가리킨다. 이 책을 읽고 나는 또 세계에 대한 다른 관점을 새롭게 바꾸었다.

이 책은 경제학 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행동경제학' 분야를 다룬 책이다. [동아일보] 사회부·경제부 기자 등을 거쳐 현재 [민중의 소리]에서 경제 담당 기자로 활동하는 이 완배 기자가 최신 경제학 담론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재미있고 위트 있게 풀어 썼다.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판단보다 심리와 감성이 실질적으로 경제를 움직인다는 '행동경제학'에 기초하여, 재미있는 심리 게임과 이론, 주장을 담았다.

저자는 '나의 심리'와 관련해,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 "다이어트, 왜 자꾸 실패할까?, 왜 첫사랑은 잊히지 않을까?, 왜 우리는 '호갱'이 되는가?" 같은 개인적인 문제를 인간의 심리·행동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경제학과 연결되는지 살펴본다. 저자가 모노폴리 실험, 넛지 이론, 뒷포켓 전략, 프레임 이론 등 다양한 행동경제학 실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제시한 답을 통해, 독자들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

인내의 상황이 반복되면 뇌도 지쳐서 의지력이 소진된다는 사실을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망이란 게 있다. 먹고 싶고, 입고 싶고, 갖고 싶고 게다가 소비를 부추기는 환경이다. 하지만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다. 금전적인 이유나 건강상의 이유로 참아야 할 때가 많다. 그런데 참고 버티기도 오래하면 지친다. 의지력이 약해져 유혹에 넘어간다. 굳은 결심도 허망하게 무너져내린다. 그러니 금연이나 다이어트가 힘들다. 그러곤 자기 탓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의지력이 한결 같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럼 방법이 없느냐? 자아 고갈 이론을 처음 발표한 플로리다주립대 심리학과 로이 바우 마이스터 교수는 자아 고갈 이론의 특징 중 하나로 이것을 얘기한다. 자기통제 능력은 근육과 비슷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능력치를 높일 수 있다고. 운동을 반복하면 근력이 늘어나듯이 인내력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참는 훈련을 하다보면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보면 인내심도 차츰 길러지게 된다. 시간을 두고 반복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 성과를 보기 힘든 일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운동하듯 꾸준히 해 볼 일이다.

나도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이 책을 읽은 후에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첫번째 부분 "다이어트, 왜 자꾸 실패할까?"이다. 이 부분이 대표하는 것은 '자아고갈 이론'이다. 다이어트가 늘 망하는 이유는 심리학에서 '자아고갈'이라는 현상이 있다. 유혹을 이겨 내는 능력을 인내력, 자기통제력, 혹은 의지력이라고 부른다. 인내력을 발휘하는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

다.유혹을 참는 동안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한다.에너지가 있어야 인내력도 발휘된다.

자아고갈 이론의 특성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자기통제력은 무한정 존재하지 않는 한정된 에너지 자원이다.둘째,자기통제력을 사용하면 그 자원은 고갈된다.셋째,자기통제를 위한 에너지는 다시 보충된다. 다만 보충되는 속도는 고갈되는 속도보다 느리다. 그래서 종종 바닥을 드러낸다.넷째,자기통제 능력은 근육과 비슷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능력치를 높일 수 있다. 이 네 가지 특징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다이어트 결심이 왜 자꾸 야식에 무너지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완배 기자가 쉽게 풀어 설명해주는 행동경제학 「삶의 무기가 되는 쓸모있는 경제학」을 읽고 나면 여러분들은 '호갱'에서 탈출 할 수 있다.이완배 기자의 말마따나 쉬지 않고 일해도 살기 힘든 세상이다. 그런 우리에게 '경제학'이 무기가 될 수 있을까? 그동안의 '경제학'이 우리 지갑을 털어가는 경제학이었다면 이제 이완배가 이야기하는 「쓸모있는 경제학」은 우리 지갑을 지키는 경제학이 될 것이다. 그러자면 이 책 읽으시라. 그리고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해 우리 같이 노력하시자.

무엇이든 알고 있으면 삶의 도움이 된다

나는 『삶의 무기가 되는 쓸모 있는 경제학』을 읽고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삶의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이번에 『삶의 무기가 되는 쓸모 있는 경제학』중의 여섯가지 이야기를 교수님이 준비해주셨다.나는 모두를 읽은 후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세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첫번째는 다이어트,왜 자꾸 실패할까?다.실패하는 큰 이유중 하나는 바로 야식이다.온종일 잘 참다가 야식을 먹고 싶어지는 이유는 자기통제력이 고갈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자기통제력은 근육과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능력치를 높일 수 있다.인내심은 언젠가 고갈되지만 자기통제력 반복된 훈련으로 자아 고갈을 늦출 수 있고 야식으로 인한 다이어트도 극복할 수 있다.

두번째는 왜 첫사랑은 잊히지 않을까?다.이 이유는 미완성으로 남으면 절대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이것을 '자이가르닉 효과'혹은 '미완성 효과'라고 부른다. 사람의 뇌는 일을 끝마치려는 본능을 갖고 있다.따라서 일을 마치지 못하면 뇌는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그 일을 보다 잘 기억한다.반면에 일을 마치면 뇌는 긴장 상태를 잃어버리면서 그 일을 곧잘 잊어버린다.이런 효과는 드라마에서도 쓰인다. 드라마의 '다음화에 계속'와 같은 경우 '자이가르닉 효과'혹은 '미완성 효과'다.결정적인 장면에서 끊으면 다음주까지 드라마 내용이 궁금해서 안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왜 시험 전날에 공부가 제일 잘될까?다.이 이유는 결핍,혹은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황은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이다.그래서 시험 공부를 할 시간이 부족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한다.결핍은 효율성을 높이긴 하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다.그것은 바로 '터널링 이펙트'라고 해서 결핍은 시야를 좁힌다.시야가 좁아지면 눈앞의 해결해야 할 일에 집중하게 되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세가지가 제일 기억에 남은 이유는 모두 경험을 해봐서 공감을 했기 때문이다.그 중에서 특히 충격을 받은 것은 세번째의 '터널링 이펙트'다.시험전에 벼락치기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위험한 부정적인 면도 있는줄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지만 앞으로 미리미리 공부를 하고 조심해야겠다고 느꼈다. 『삶의 무기가 되는 쓸모 있는 경제학』을 읽고 많은 것을 배웠고 교수님이 준비해주신 여섯가지의 이야기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거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삶의 무기가 되는 쓸모 있는 경제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더욱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다.

삶의 부정적인 것을 알고 열심히 고치라

2019년에 출간된 『삶의 무기가 되는 쓸모 있는 경제학』은 경제학 분야에서 인간들이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행동경제학 분야를 다룬 책이다. 독후감대회를 통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을 쓴 이완배는 1971년에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이제 네이버 금융서비스 팀장을 거쳐 2014년부터 <민중의소리>에서 경제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대부분 사람의 심리와 감정이 실질적으로 경제를 움직인다는 행동경제학에 기초하여 재미있는 이론과 주장에 대해 얘기 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제일 흥미로운 부분은 <다이어트, 왜 자꾸 실패할까?>에 대한 내용이다. 이 이론을 통해 나는 왜 다이어트가 늘 망하는 이유와 자기통제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알게 되었다.

다이어트는 인간의 영원한 소망이다. 특히 여성들이 완벽한 미모와 몸매를 위해 다이어트를 시행하고 싶다. 그런데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왜냐하면 의지력이 박약해서 맛있는 음식의 유혹을 못 견디기 때문이다. 만약에 자주 야식을 먹는 습관을 고칠 수 있으면 다이어트 성공에 한 걸음 다가서다. 저자가 우리의 인내심은 언젠가 고갈된다. 하지만 반복된 훈련으로 자아 고갈을 늦출 수 있다. 자기통제 훈련을 지속하면 야식으로 인한 다이어트 실패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을 강조하게 말했다. 다시 말하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것은 자기통제력이 고갈되기 때문이다 . 나는 두 손을 들어 찬성하고 다이어트에 실패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자기통제력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가? 책에서 언급한 이 이론을 만든 바우마이스터 교수는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고 귀뜸한다. '자기통제 능력은 근육과 비슷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능력치를 높일 수 있다. '라는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 한마디로 인내심을 키우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자기통제를 시도하면 언젠가는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알려 줬다. 나는 이들을 통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책의 내용은 현 시대에 흔히 나타나는 일상적인 현상에 대해 고민하거나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책을 통해 많은 모르는 것을 알게 돼서 이성적인 지식을 습득했다. 특히 나는 자아 고갈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해서 야식을 먹고 싶게 된다는 것을 깊이 이해했다. 좋은 이론과 얘기만 알게 될 뿐더러 나쁜 사례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허용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인간이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아를 잃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마땅히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나쁜 유혹을 통제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책을 나에게 어떤 사회의 부패한 면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나의 아름다운 환상을 파괴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이 책은 요즘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쉽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해 주는 좋은 책이다. 나는 현 시대 쉽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현상을 깊이 이해하고 경계와 고치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